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秋史 金正喜의 師弟關係에 對한
濟州教育史的 意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梁 恩 叔

2012年 8月

秋史 金正喜의 師弟關係에 對한 濟州教育史的 意味

指導教授 梁 鎮 建

梁 恩 叔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8月

梁恩叔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2年 8月

【국문초록】

秋史 金正喜의 師弟關係에 對한 濟州教育史的 意味

梁 恩 叔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行政專攻

指導教授 梁 鎮 建

본 논문¹⁾은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윤상도 옥사에 연루되어 8년 3개월 간 제주도에서 유배생활하는 동안 제주교학활동에서 나타나는 사제관계를 내도인과 제주인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조명된 추사 김정희의 사제관계의 제주교육사적 맥락과 추사 김정희의 과학적인 실사구시 학문을 접한 제주도의 근대 학문에 끼친 의의를 규명해 보고자 한 것이다.

추사는 유배기간에도 끊임없는 독서열과 학문적 자세를 견지하고 실행하였으며, 제주도에서도 후진 양성을 위해 지극한 정성을 쏟았다. 추사의 생애에 나타난 학문의 길은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실행이었고, 고난을 극복한 정신적 힘의 근원은 무사(無私)와 통하며, 광범위한 사제관계에서 이루어진 학문 방식은 ‘學·問·思·辨·行’ 이었으며, 인맥의 본질은 나라와 피아(彼我)를 초월한 원대한 동질성이 바탕을 이룬 공유와 옹고 그림을 따지며 밝히는 자세로 나타났다.

그의 유배생활은 추사 김정희 자신에게는 생애의 불행이었지만 제주도민들은 痛鑑·論語·孟子 등을 학습하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추사에게서 사서오경(四書五經)은 물론 서도(書道)와 천문(天文) 및 산수학(算數學)까지도 교육을 받음으로써 당시 제주도 유생(儒生)들은 비로소 과학적인 실사구시의 학문을 접하게 되어 제주도의 근대 학문에 지대한 영

1) 본 논문은 201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향을 받게 되었다.

추사 김정희가 대정현에 적거하게 되자 원·근에 학도들이 스승을 따라 수학하였고, 추사의 해박한 학문과 강직 공명한 성품은 제자들에게 큰 감명과 감화를 주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제주지역에 학문과 문화의 기틀을 마련할 기회가 되었으며, 제주지역 교육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한 교육자 또는 자기완성자로, 현지의 학문향상과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추사는 제주유배 기간에 많은 사제관계를 맺으며 교학활동을 하는데 그의 활동 속에 나타나는 師弟, 師友관계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사는 한편으로는 서책(書冊)과 서화(書畵)를 통해 자신의 심기를 다스려서 유배지의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주지역민들의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추사가 유배지인 고도(孤島)에서 학문과 예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격조 높은 예술의 경지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초의선사, 소치, 그리고 특히 그의 제자 이상적이 있었기에 실현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민과의 생활에서 시대의 불리함을 딛고 후일을 기약하며 교육과 학문연마에 힘썼다. 또한 당시 시대상황과 학문, 정치활동에 미흡한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사제관계를 유지하면서 두드러진 교학활동은 제주 유배지에 수준 높은 문화전파와 함께 독특한 유배문화유산을 남기기도 하였다.

유배과정에서 수반되는 유배객 및 지방학인의 학문성취와 의식전환이 “중앙~주변”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동태의 관계임을 시사한다.

추사 김정희의 개화교학활동은 다른 무엇보다 제주도 근대교육의 구체적 전망을 열었다는 점에서 교육사적 의의가 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 대상 과 방법	4
II. 추사 김정희의 생애와 학문적 배경	7
1. 추사 김정희 생애	7
2. 역사적 의미 및 추사의 학문	16
III. 추사 김정희의 제주교학활동	20
1. 추사 김정희의 제주 교학활동	20
1) 스승의 역할 강조	23
2) 경험적 수련의 강조	26
3) 책 읽기의 교육철학	29
IV. 추사 김정희의 사제관계	33
1. 내도인들 과의 사우·사제관계	37
2. 제주인과의 사제관계	46
V. 제주교육사적 의미	58
1. 추사 김정희 사제관계 영향	58
2. 제주교육사적 의미	60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63

2. 제언	64
참고문헌	66
Abstract	7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동력이 바로 교육에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그런데 주입식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의 교육은 인성교육을 끊임 없이 강조하면서도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성교육은 양호한 사제(師弟)관계 위에서 구축된다. 양호한 사제관계는 사(師)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할 뿐 아니라 제자(弟子)에게도 엄격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스승과 제자 상호간의 영향력을 중시함으로써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환경 하에서 사제관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²⁾. 첫째는 긴장된 사제관계이다. 일상적인 교육과정 중에서 교사는 학생을 수동적인 교육의 객체이자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학생의 개성이나 흥미를 고려하지 않는 주입식 교육으로, 즉 교사의 권위로 학생들을 대함으로써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는 왜곡된 사제관계이다. 가르치는 사(師)는 신성하고도 명예로운 직업이다. 하지만 그릇된 사회 풍조와 시장경제의 부작용으로 교사의 인격이나 책임감은 퇴색되어가고 있으며, 교육을 하면서도 제자들과 거리를 두거나 교사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기도 한다. 셋째는 낯선 사제관계이다. 사제관계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스승은 제자의 심리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제자 또한 스승과의 진정한 교류를 원하지 않아, 이로 인해 스승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사제관계(師弟關係)는 조선조 성리학적 교육정신의 특징이며 귀결점이다. 성리학의 사제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만의 만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본전제를 의미하는 역사의식으로서 조선조 선비정신의 핵심이다³⁾. 일

2) 안경식, 「師弟關係에서 본 師道와 弟子道」

3) 양진건, 「秋史 金正喜의 師弟關係 淵源考」.申瑢俊 博士 華甲 紀念 論, 1989, P237. 재인용.

반적으로 사제관계란 전통적인 형식으로서 학생 혹은 사문(師間)하여 사제(師弟)의 관계를 맺는 형식은 물론이거니와 다만 서한(書翰)으로 문목(問目)을 하거나 혹은 서지(書贄)를 올려서 사생관계(師生關係)를 맺는 등의 여러 관계를 총칭하는 것이다. 특히 고인 또는 먼 곳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속으로 그 덕을 사모하고 직접 가르침이 없어도 그 사람을 스승으로 하여 자기 학문을 닦는 사숙제자(私淑弟子)의 관계는 사제관계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렇듯 성리학의 사제관계란 직접 수업하지 않고도 맺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좌주(座主: 스승)와 문생(門生: 제자), 성균관과 유생, 서신왕래 및 한두 번 방문하여 학문적인 질의와 토론 등의 관계에서도 사제관계가 성립되기도 하였다. 성리학 자체가 사제의 도통전수(道統傳受)를 통해서 계승되기 때문에 성리학을 배우는 사람의 학적 임무는 스승으로부터의 도(道)를 전해 받아서 제자에게 도(道)를 전해주는 계왕개래(繼往開來)였던 것이다⁴⁾. 그래서 성리학의 사제관계 연원(淵源)을 도통(道統)이라고 하거나 조선조에 있어서는 이 도통연원(道統淵源)에서 비로소 학문적 논쟁을 통한 학파의 탄생을 보았었다.

이러한 사제관계는 운명적인 만남이지 일시적인 이해나 편법에 의하여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군사부일체의 조선시대에 스승을 저버린다(背師)는 것은 강상(綱常)의 죄에 버금가는 도덕적 파탄행위였다. 조선조의 형정(刑政)에 있어서 고려율과 특히 다른 것으로 제자로서 스승을 살해하는 하극상의 범행을 10악에 넣어 극형에 처했음이 이를 대변한다⁵⁾.

그렇기 때문에 사제관계는 조선조 지식인들의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기본자세이었으며 절대원칙으로 학문의 전수뿐만 아니라 생사의 관계까지 의미하는 윤리 체계였다. 사제관계는 무엇보다 선비들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선비가 선비인 까닭은 사제의 인륜 때문이며 선비들은 군(君)과 사(師)와 (父)를 삶이 영위되는 기본 전제로 보았는데 이러한 군사부일체 의식 때문에 선비들은 낳아준 부와 가르쳐준 사와 먹여준 군을 하나같이 섬기고 그 은혜를 죽음으로써 갚아야 했던 것이다⁶⁾. 그래서 선비의 공식 명칭은 유생(儒生)이었던 것이다.

4) 栗谷의 聖學輯要 構成은 ① 傳統 - ② 修身 - ③ 正家, ④ 爲政 - ⑤ 道統으로서 결론의 道統編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道統編의 마지막 말은 「必死斯道大命而大行, 以接道統之傳, 萬世幸甚」으로 道統傳受를 강조하고 있다. (양진건, 「濟州流配人の 開化教學活動研究」, 民族文化研究, 1986, p263, 재인용.)

5) 고창석, 양진건, 『濟州道 流配에서의 勉庵 崔益鉉의 濟州教學活動 研究』, 耽羅 9. 1989, p278.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에서 사제관계는 조선조 식자들의 삶의 기본 전제가 되었던 것이며 조선조 교학사상의 특징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렇듯 사제관계는 바로 교육에 적극적인 촉진작용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에 적극적이고 발전적이며 장기적인 영향을 끼친다.

추사 김정희는 조선 최고의 예술가로 평가받는 인물로 시(詩), 서(書), 화(畫)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룩하였다. 그는 1840년 반대파의 모함으로 제주에 유배되었으며, 유배기간동안 독서활동, 예술 활동을 통해 제주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 최고의 글씨로 평가되는 추사체와 대표작인 「세한도(歲寒圖)」는 제주 유배 생활 중에 완성되었다. 나아가 제주에 유배 왔던 추사 김정희의 교학활동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감성적, 인격적 교감과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스승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오늘날의 교육활동과 사제관계에 깊은 가르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교육활동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오늘날의 사제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사제관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추사 김정희의 사제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전통 성리학 교육정신의 핵심인 사제관계가 제주도에서 어떻게 체계화되고, 나아가 어떻게 전수되었는지 추사 김정희의 사제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제주도에 성리학적 사제관계의 질서가 소개, 정착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이미 태조원년(1392)에 학교가 세워지고 세종 17년(1435)에 향교가 다시 지어졌다고⁶⁾ 하므로 대략 제주도에 대한 교육시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조선조 선 건국 초부터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육지부에서처럼 학통

6) 양진건, 「朝鮮朝 教育思想史 研究」, 濟州道研究 第3집, 1986, p229, 재인용

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38, 濟州牧, 學校條 「在域中 金處豫備 我太祖元年 壬申 學校成 世宗 17年 乙卯 鄉校再造」(양진건, 앞의 책, 1989, P239, 재인용).

(學統)이나 학파(學派)라고 칭할 만큼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문풍(文風)으로서 본격적인 사제관계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제주도에서는 육지부와 달리 유배유현(流配儒賢)들을 개산조(開山祖)로 하여 나름의 면면한 맥을 형성하여 지방교육을 주도하였던 경우는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학맥(學脈)이나 인맥(人脈)은 유배유현들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도통(道通)의 유현(儒賢)들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조선시대의 정신사와 무관한 변방의 외딴 흐름이 아니라 조선시대 교학질서의 중요한 부분으로 성리학의 질서이념인 도통과 함께 호흡하는 흐름이었던 것이다⁸⁾.

본 논문은 우선 추사의 생애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러한 시대적 특성과 제도가 유배인의 의식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나아가 그의 학문적 배경과 사상을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내용적 특징을 고찰한 후 추사 김정희가 제주교육사회에 끼친 교학활동을 사제관계를 통해 전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조선조 교육질서 체계인 도통과 유배인 추사 김정희의 교학사상이 어떻게 제주도에서 연계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제주도에 연계된 도통(道統)의 영향력들이 제주도에서 유림을 상대로 어떻게 관계 맺었는지, 즉 교육사적 전통과 관련된 사제관계의 생활세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추사 김정희의 사제관계에 대한 제주교육사적 의미를 연구하여 제주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각도로 추사 김정희 사상과 철학이 사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추사 김정희(1786~1856)는 정조 10년에 태어나 철

8) 양진건, 앞의 책(1989), p243, 재인용.

종7년 71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그의 생존 시기는 근세조선 18세기 후반으로 부터 19세기 전반에 이르는 동안으로 세도정치(世道政治)가 아닌 세도정치(勢道政治)의 무자비한 정권싸움으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으며, 거세게 밀려오는 외국세력을 방어할 경제력과 국방력이 미약할 뿐 아니라 조선조 봉건체제(封建體制)의 붕괴과정(崩壞過程)시기였다9).

제주에 유배 왔던 많은 인물들 중에 추사 김정희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른 유배인들(보통 1년 이내임)보다 비교적 장기적인 8년 3개월간 유배생활을 한 추사 김정희는 유학의 본산인 성균관에서 대사성을 역임10)하였던 인물이다. 현대적 의미로 볼 때 단 하나뿐인 국가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립대학 총장을 지낸 인물로 당시 유학자로서 학문과 폭과 깊이를 그가 남긴 문집11)에서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대학자가 제주에 머무는 동안 유배생활의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고 개화사상가로서 조선시대 유배제도가 끝나는 시기에 제주근대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배인들의 제주교육활동에서 나타나는 사제관계에 대한 선행연구12)는 제주교육 내용을 파악하고 밝혀내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면서 제주지역에 형성된 교육활동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 연구의 중심 대상인 김정희의 사제관계 연원고를 분석하여 제주교육사적 의미를 밝혀냄

9) 유승국, 「19세기 實學의 巨頭 秋史의 學問과 藝術世界」, 秋史研究, 2004, p11.

10) 유흥준, 『김정희』, 추사연보, 학교재, 2006, p 478.

11) 『완당척독(阮堂尺牘)』(2권 2책, 1867년)·『담연재시고(覃巖齋詩藁)』(7권 2책, 1867년)·『완당선생집』(5권 5책, 1868년)이 있다. 그리고 『완당선생진집』(10권 5책, 1934년)은 중현손 익환(翊煥)이 보충, 간행. 참고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예술/체육>회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3380>.

12) 양진건, 「조선조 제주교육사상사 연구(朝鮮朝 濟州 教育思想史 研究)」, 1986.

양순필, 양진건, 「秋史의 濟州 教學活動 研究」 耽羅文化 6. 1988.

양진건, 「추사 김정희의 사제관계 연원고(秋思 金正喜의 師弟關係 淵源考)」, 1989.

양진건,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 교학사상 연구(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 教學思想 研究)」, 1992.

양진건, 「제주유배인의 개화교육활동 연구(濟州流配人의 開化教學活動 研究)」, 1992.

양진건, 「유배문화 와 제주도: 제주교육의 기저에 대한 이해를 위해」. 2001.

양진건, 「추사문헌발췌 학술조사 용역보고서」, 2005.

원용석, 「추사 김정희의 교육관 연구(阮堂 金正喜의 教育觀 研究)」, 2002.

김병희, 「유교적 교육전통에서의 사제관계 성격」, 2003.

안경식, 「사제관계에서본 사도와 제자도」. 2002.

손인주, 「한국교육사상사의 전개과정과 전망」, 1987.

최경춘, 「추사 김정희의 학문론(秋史 金正喜의 學問論)」, 동양한문학연구, 2009.

홍제곤, 「지방사의 역사교육 활용방안」, 2010.

장 용, 「東學의 教育思想과 現代的 意義」, 2004.

고범석, 「제주유배문화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일 연구」, 2004.

권혁순, 「阮堂 金正喜 漢詩의 自然觀 研究」, 2009 등이 있다.

으로써 기본적으로 조선후기 제주교육사의 내용을 보완, 확충하고자 한다.

그러나 추사의 제주교학활동 사제관계가 구체적으로 서술된 문건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추사 유배서간을 통해 겨우 얼마쯤 기록을 남기고 있고 체계적이라고 하기에는 빈약하지만 여러 가지 단편적인 활동내용들을 참고하여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조선 후기 그 실재 세계에 접근하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 여러 가지 학문분야를 망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제관계 활동을 통해 제주 교학활동을 바라보고자 했다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조선후기 제주교육활동의 내용을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논문은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서술하였고, 제2장은 추사 김정희의 생애와 학문적 배경, 제3장은 추사 김정희의 제주교학활동, 제4장에서는 추사김정희의 사제관계를 내도인과 제주사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제5장은 제주교육사적 의미, 그리고 제6장은 결론과 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II. 추사 김정희의 생애와 학문적 배경

1. 秋史 金正喜 生涯

추사 김정희의 생애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상당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화된 연구 업적은 본고가 참고한 논저를 제시하는 것¹³⁾으로 대신하고, 연구자는 골자가 되거나 재론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生長 · 修學期 (1786~1830, 정조 1~순조30년, 1~45세)

추사 김정희는 1786년(정조 10년)6월3일,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에서 호조판서와 병조판서를 지낸 김노경(1766-1837)과 김제 군수 유준주의 딸 기계유씨(1766-1801)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¹⁴⁾. 김정희의 본관은 경주(慶州)로 자(子)는 원춘(元春)이고 처음엔 호를 추사(秋史)라 하였으나, 이후 추사 · 승설 · 도인 · 노과 · 병거사 · 노완 · 등 약 30여 종¹⁵⁾에 이른다. 추사의 12촌 대고모는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이고, 증조부 김한신은 영조의 둘째 딸 화순옹주와 결혼하여 월성위에 봉해진 조선후기의 쟁쟁한 집안이며 외가도 노론계 명문이다¹⁶⁾.

추사 김정희 15세(정조 24년, 1800)때에는 정조가 49세의 나이로 서거하고 11세인 순조가 즉위하여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였으며, 추사가 17세(순조2, 1802) 때에는 안동 김씨 김조순의 딸이 순조의 비로 책봉되어 세도정치의 기틀이

13) 추사 김정희의 생애 및 시대상황과 관련된 참고 논저를 일부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김정희, (선중순 편), 『국역 추사전집』 4,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97.

유봉학, 「추사의 시대 - 정치적 추이와 추사 일문」,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양진건, 『추사, 그에게 길을 묻다』,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 2011.

양진건, 『추사문헌발췌 학술조사 용역보고서』, 제주대학교, 2005.

유홍준, 『추사평전』 1,2,3, 학교재, 2002.

이춘희, 「秋史 金正喜의 生涯와 그의 作品世界」,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14) 유홍준 저(김정희), 학교재, 2009, p22.

15) 김은미, 「秋史 金正喜의 號에 대한 研究」, 원광대 서예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p14.

16) 김정희, 선중순 편, 《국역추사전집 4》, 민족문화추진회, 1997. P5.

마련되었다.

추사 김정희가 연경에 간 것은 24세(순조9년, 1809) 때였다. 추사 김정희는 연경에서 두 달 정도 머무르며 견문과 학식을 넓혔고, 돌아온 후에도 청유들과 계속 교류하였다. 추사 41세(순조 26년, 1826) 6월 25일에 충청 우도 암행어사가 되었고, 6월 26일에는 비인 현감 김우명 등에게 봉고파직의 조치를 취하였다.

추사 김정희 42세(순조 27년, 1827)이던 2월 18일은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한 날이다. 안동김씨 외척벌벌의 울타리를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려던 순조는 대리청정이라는 비상조치를 통하여 안동 김씨를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세자는 척족정치에 비판적인 노론 청류세력을 규합하여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삼은 가운데 정조대의 우문정치(右文政治)와 위민정치(爲民政治)를 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정치적인 소외세력을 삼사에 배치하여 안동 김씨 계를 견제하고, 세도정권의 기반이 된 비변사¹⁷⁾에 김노경·조만영·홍기섭·김로·조인영·등 자신의 핵심 관료를 배치하였다¹⁸⁾ 이렇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여건 속에서 추사 김정희는 5월 17일, 의정부 검상(檢詳)이 되었고 7월 18일, 선교관(宣敎官) 통정(通政)에 가자(加資)되었으며, 10월 4일에는 예조참의(禮曹參議)가 되었다가 10월 7일에 물러났다.

추사 김정희 나이 43세(순조 28년, 1828) 7월 2일에는 부친 김노경이 평안감사로 부임하였다. 그리하여 추사도 평양에 가서 묘향산 보현사를 순례하고 시화(詩畵)로 유명한 기생 죽향이와 서예가 조광진을 만나는 등 견문과 교분을 넓혔다.

추사 김정희 44세(순조 29년, 1829)때, 완상생에게 장찰(長札)을 써서 『皇淸經解』¹⁹⁾의 기증을 요망하였고, 홍수로 평양 고구려 성벽이 무너졌을 때는 성벽의 글자를 탁본해서 유희해에게 보내 함께 고증하는 등 새로운 학문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²⁰⁾.

17) 조선 시대에, 군국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중종 때 삼포 왜란의 대책으로 설치한 뒤, 전시에만 두었다가 명종 10년(1555)에 상설 기관이 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의정부를 대신하여 정치의 중추 기관이 되었다.

18) 김명숙, 『反外戚勢力의 정치동향』C, 『효명세자연구』, 한국무용예술학회, 2005, P74.

19) 『皇淸經解』는 2년 후인 1831년 10월22일 완상생의 부탁을 받은 유희해가 이상적을 통해 추사에게 전했다(등촌린, 박희영 역, 앞의 책, p409~410).

20) 박정자, 『秋史 金正喜의 生涯와 藝術』,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2) 가화기(家禍期)²¹⁾(순조 30: 1830 ~ 1940 ~ 현종 6년: 45 ~ 55세)

추사 김정희 45세 (순조 30년, 1830년)이던 5월6일, 효명세자는 대리청정한 지 3년3개월 만에 2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왕권을 강화하려던 순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 실패는 추사 집안의 가화기(家禍期)로 이어졌다²²⁾.

효명세자의 핵심관료였던 김노경의 아들 추사 김정희는 6월 20일에 동부승지가 되었으나 7월 27일에 그만두었으며, 효명세자가 홍거한 지 4개월도 안된 8월 27일에는 부사과(副司果) 김우명이 김노경을 탄핵하였다²³⁾. 다음은 김우명이 올린 상소문²⁴⁾의 일부분이다.

정해년의 대리청정 하는 초기에 이르러 크게 두려워하며 겁을 내어 계획은 자리를 튼튼히 하는 데 두고, 종의 얼굴과 종의 행동으로 김로를 향하여 가련하게 여겨 주기를 바라면서, 수십 년 동안 생사를 알지 못하고 마음을 억제하며 벼슬살이를 하였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것이 얼마나 흉측스럽고 사리에 어긋나는 것이겠으며,...(중략)... 그리고 요사스런 자식이 항상 반론을 가지고 교활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으로 삼으면서도 인륜이 허물어지는 두려움을 돌보지 않았습니까²⁵⁾.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김노경의 죄는 4년 전에 한 말이다. 즉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한 정해년(1827)의 일이다. 그러자 순조는 다음과 같이 비답을 내렸다.

전 평안도 관찰사의 일을 그대가 나열하였는데 과연 모두 그대가 듣고 본 것인가? 중요한 관직에 있는 신하는 특별해야 하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으며 어찌 있겠는가? 그리고 심지어 자식과 조카까지 논하였는데 또한 어떻게 미워하기를 이렇게 심하게 하는가? ...(중략)...이러한 풍습은 자라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대를 삭직한다²⁶⁾.

21) 안외순, 「추사 김정희 家의 家禍와 윤상도 옥사P265~296」, 『추사연구』 제4호, 추사연구회 2006, p38. 에서 實錄 의 추사 「졸기」에 ‘家禍’라고 규정한 것과 같으며, 추사 일가의 가화를 1차 가화(순조30년) · 2차 가화(현종6년) · 3차 가화(철종 2년)로 나누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추사의 전 생애를 살피는 관 계로 1,2차 가화를 家禍基로 하였으며, 제주도 유배 이후는 流配 · 晩年基로 구분하였다.

22) 안외순, 「추사 김정희 家의 家禍와 윤상도 옥사」, 『추사연구』 제4호, 추사연구회 2006.

23) 유흥준, 『김정희』. 학고재, 2006. p134.

24) 이 상소는 舊怨(유흥준 『추사평전』 1, 237면) 곧 추사에게 봉고과직 당한 원한이 도화선이 된 것. 김우명이 안동 김씨 조직의 사주를 받은 것이 직접적 원인 일 것이다. 효명세자의 핵심관료 중 외척 풍양 조씨를 제외한 홍기섭 · 박중훈 · 김로 · 김노경 · 등이 모두 탄핵을 당한 것은 이를 입증한다.

25) 及夫丁亥代聽之初, 大生惶恟, 計在固位, 奴顏婢膝, 向金鑾而乞憐, 數十年生死, 不得抑情仕宦之說, 是何凶悖, …(중략)… 而妖子之常持反論, 巧作涉世之良方, 而不顧敦路倫之畏.(純祖大王實錄).

26) 前西伯事, 爾所臚列, 果皆爾所聞見乎. 重臣處地自別, 寧有是也, 寧有是也. 至於論及子姪, 又何疾之 已甚乎. …(中略)… 此習不可長. 爾則削職.(純祖大王實錄 12, p 51 참조).

순조의 판결로 김우명의 상소는 종결된 듯했지만, 8월 28일(순조30년, 1830)에는 부사과(副司果) 윤상도가 박종훈·신위·유상량의 처벌을 요구하며 나섰다. 그러자 순조는 이 상소문에 대하여,

지휘하고 시키는 사람이 있어서 시기를 틈타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키려고 계획하였을 것이니, 엄중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인심을 바로잡고 간사한 말을 그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지만 여러 차례 생각하고 헤아려 보았으나 말한 자를 찾으려고 앓는 것은 도리어 시대를 손상시키는 것이니, 우선 가벼운 법을 따라 윤상도를 유배 보내도록 하라²⁷⁾.

라고 비답하여, 윤상도의 뒤에 조종하는 배후가 있는 상황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세자가 죽은 지 4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순조는 윤상도를 추자도에 유배 보내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한 것 같다. 그러나 9월 4일에 양사에서는 윤상도가 상소한 연원을 조사할 것을 건의하였고, 9월 11일(순조30년, 1830)에는 대사헌 김양순을 필두로 하여 사간원과 사헌부 양사(兩司)에서 김노경의 처벌을 건의하는 합계(合啓)를 올렸다²⁸⁾.

그 상소문에는 김노경의 죄가 한 가지 더 추가되어 있다. 11년 전 기묘년(1819)에 김노경이 예조판서로 세자 가례도감(嘉禮都監) 제조(提調)를 맡고 있을 때, 불평을 했다는 것이다.²⁹⁾ 그러나 순조는 국청을 설치하는 것을 운허하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보름도 안 된 9월 24일(순조 30년, 1830)에는 홍문관까지 합세하여 삼사(三司)에서 들고 일어났고, 9월 25일에는 삼정승이 과단성 있는 정치를 행하라며 촉구하고 나섰으며, 9월 28일에는 삼정승이 또 연명으로 상소문을 올렸다. 그리하여 김노경은 10월 8일(순조 30년, 1830)에 강진현 고금도에 위리안치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추사 김정희의 학문적 열의는 식지 않았다. 46세(순조 31년, 1831) 7월 22일에는 사은사를 수행하는 이상적을 통해 유희애에게 묘향사비 탁본을 기증하여 비문이 「東海金石苑」³⁰⁾에 실리게 되었고 추원은 유희애를 통해 10

27) 指使之入, 欲爲乘時煽亂之計, 當嚴鞫得情, 以正人心, 以息邪說. 而屢回思量, 不欲索言, 反傷事面, 姑從惟輕之典, 尹尙度楸子島定配.(純祖大王實錄 12, p52).

28) 유희준, 『김정희』. 학고재 2006. p138.

29) 『純祖大王實錄』 12, p53.

30) 유희애가 김정희·김명희·조인영 등 조선의 학자들이 전해 준 금석문을 엮어 만든 책이다. (하해정, 「'기증 線裝本 도서'에 대해」 『秋史研究』 제 3호, 추사연구회 2006.

월 22일에 『黃淸經解』³¹⁾를 보내주었다.

한편 추사 김정희는 부친이 유배된 지 1년 5개월 쯤 된 47세(순조 32년, 1832) 2월 26일에 격쟁(擊錚)³²⁾을 하여 지극한 효심과 시세에 영합하지 않는 고고(孤高)한 성품³³⁾을 나타냈다. 다음은 격쟁한 내용의 일부이다.

저의 종형 김교희는 영변의 임소에서 체직되어 돌아와 갑자기 뜯소문이 유행하는 것을 듣고 김로를 公座에서 만나 그 때에 수작한 것이 어떠했는지를 다그쳐 물었는데, 김로의 대답한 바는 곧 저의 아버지의 말과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과연 이러한 흉언이 있었다면, 말했던 장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들었던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 이 일이 과연 어떠한 관계인데, 누가 즐겨 덮어 숨겨 주다가 10여 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드러내겠습니까?³⁴⁾

위 인용문의 예리한 논조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자다운 추사 김정희의 면모를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추사 김정희의 실력은 언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추사 김정희의 변론은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올린 상소문과 판연히 다르고 죄안(罪案)이 지극히 무겁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추사 김정희는 의기소침하지 않았다. 그 해 10월 25일(순조 32년, 1832), 함경감사가 되어 함흥에 가는 권돈인에게 황초령 진흥왕 순수비를 찾아봐

31) 『黃淸經解』는 완원이 편찬한 총서로 청대 고증학의 정수이다. 1825년에 편집하여 1828년에 판각의 완성된 1400권 180여종의 방대한 책인데. 후지츠키는 추사가 경학의 최고봉에 이르게 된 것은 경혜의 덕분(하혜정 위의 책, p182)이라고 하였다.

32) 擊錚에는 闕內擊錚·衛內擊錚·衛外擊錚이 있는데,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거의 위의격쟁이었다. 이는 형태에 따라 언어발관·격쟁으로 나뉘었는데 그 당시에는 격쟁만 할 수 있었다. 격쟁은 격쟁인을 붙잡아서 刑推를 가한 후 原情을 취조하였는데, 주로 하층민이 선호하였다.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 원통(冤痛)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하소연하기 위(爲)하여 거동(舉動)하는 길가에서 징이나 팽과리를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리던 일. 조선(朝鮮) 시대(時代) 때 신문고(申聞鼓)를 폐지(廢止)한 후(後)에 재판(裁判)에 불복(不服)한 자로 하여금 팽과리를 쳐서 임금에게 호소(呼訴)하게 하였음. 격쟁할 수 있는 경우(境遇)에는, 자손(子孫)이 조상(祖上)을 위(爲)하여, 처가 남편(男便)을 위(爲)하여, 동생이 형을 위(爲)하여, 종이 주인(主人)을 위(爲)하여 하는 4가지 경우(境遇) 외(外)에 함부로 격쟁하는 것을 금(禁)했음. 사리(事理)에 맞지 않는 것을 송사(訟事)하기 좋아하여 격쟁한 사람은 장 100대에 유(流) 3천 리에 처하게 하며, 수령(守令)을 유임시키기 위(爲)하여 격쟁한 자는 장(杖) 100을, 중한 자는 도(徒) 3년형에 처하게 했다.(韓相權, 『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 一湖閣 1996, p24-25 .

33) 순조의 장인 김조순은 홍문관·예문관의 대제학을, 김유근은 병조판서와 어영대장의 직책을 맡아 문함과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추사가 격쟁을 택한 것은 안김 세력에게 비굴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정의롭게 정면 돌파하고자 한 뜻으로 보인다. (최완수, 『秋史實記 - 그 彼岸의 生涯와 藝術』 중앙일보사- 1985.

34) 渠之從兄教喜, 自寧邊任所遞歸, 謗聞浮設之流行, 逢看金鑄於公座, 迫問基時酬酌之如何, 則鑑之所答, 卽與渠父之言, 無一差爽 鑑今生存, 焉敢誣也, 而已卯凶言事, 尤萬萬虛謊冤痛矣, 渠父果有此凶言, 則言之必有其處, 聞之必有其人, 此果何等關係, 而孰肯掩護, 乃於十餘年之後, 始爲發露乎(『純祖大王實錄』13,9면 참조).

달라고 당부하였고, 그 뒤 권돈인은 황초령비를 찾아내어 탁본을 추사에게 보내 주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는 「眞興二碑攷」³⁵⁾라는 금석학 논문을 저술하였다.

그 이듬해 추사 김정희는 48세(순조 33년, 1833)가 되었고 9월 22일에는 부친 김노경이 유배에서 풀려났다. 그런데 추사 김정희 나이 49세(순조 34년, 1834)이던 11월 13일에는 순조가 45세 나이로 승하하여 11월 18일에는 헌종이 즉위하였고, 헌종이 나이 8세였으므로 김유근의 여동생 순조비가 대왕대비로 수렴청정을 시작하였다. 추사는 51세(헌종 2년, 1836) 4월 6일에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가 7월 6일에 병조참판이 되었고, 11월 8일에 다시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 추사 김정희 52세(헌종 3년, 1837)가 된 3월 18일에는 헌종의 비가 순원대비의 8촌 동생으로 결정되어 안동 김씨의 세도가 더욱 굳건해졌다.

추사 김정희 53세(헌종 4년, 1838)이던 3월 30일에는 부친이 타계했지만, 추사 김정희가 쌓아 놓은 학예 분야의 업적은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추사 김정희는 그 해 8월 20일, 권돈인을 대신하여 왕희손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글이 『海外漂錄』³⁶⁾으로 제본되어 학자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자리매김하였다.

추사 김정희 54세(헌종 5년, 1839) 5월 25일에 형조참판이 되었으며, 55세(헌종 6년, 1840) 6월에는 동지부사에 임명되었으나 가지 못했다. 대사헌 김홍근이 7월 10일에 또 다시 윤상도와 김노경을 탄핵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수렴청정하던 대왕대비는 7월 10일에 윤상도의 국문을 하교하였으며, 7월 12일에는 김노경에게 추탈의 법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윤상도를 국문한 결과 윤상도는 전 승지 허성³⁷⁾이 시켰다고 했고, 허성은 김양순의 사주를 받았다고 했으며, 김양순은 추사 김정희가 시켰다고 주장하여 김양순과 추사 김정희의 대질신문이 있었다. 그러나 대질 끝에 김양순의 거짓이 드러났고 사건이 안동김씨 쪽으로 불리하게 확대되려고 하자, 서둘러 김양순은 8월 27일에 장살되었고 윤상도는 8월 11일에 능

35) 김정희, 『국역 추사전집』 1. 서울, 1985, p25~47.

36) 왕희손은 추사가 대신 쓴 권돈인의 편지를 받고 책자로 꾸며 『海外漂錄』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래서 권돈인은 연경 學壇에서 명성이 자자해졌는데, 등총린은 1934년 추사의 자필편 초본(후지즈카의 추사연구 자료), 과천문화원, 2008, 21~31면)을 입수하여 그 편지가 추사의 글이라는 것을 밝혔다. (『국역추사전집』 2, 135~149면 참조. :등총린, 박희영 역, 참조.

37) 허성은 태안 전 군수로不治罪로 처분을 받았던 자이다. 이로써 조선 후기에 안동 김씨 계의 하수인의 되어 비리를 일삼았던 자들의 전횡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김우명도 허성과 같은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허성은 사건이 안동김씨계에게 불리하게 진전되자 제거당했다.(權赫淳 홍익대학교대학원, 추사 김정희 한시의 자연관 연구. 박사논문. p30, 인용.

지쳐사가 되었으며, 8월 30일에는 허성이 능지처참되었다³⁸⁾.

이제 모함을 받은 김정희만 남게 되었다. 이때 우의정으로 있던 조인영이 9월4일에 추사 김정희의 재처를 청하는 차자를 올렸다. 그러자 순원왕후는 그 날로 “鞫囚罪人正喜, 大靜縣圍籬安置.”(국청에서 가둔 죄인 정희를 대정 현에 위리안치 하도록 하라)³⁹⁾라고 하교하였다.

3) 유배(流配) · 만년기(晩年期)(1840~1856, 헌종 6~철종 7년, 55~71세)

추사 김정희는 55세(헌종 6년, 1840)이던 9월 4일에 제주도 대정현에 위리안치 되도록 명을 받았고, 유배지에 도착한 것은 10월 2일이었다. 한편 조정에서는 1841년부터 헌종이 정사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정국은 변화의 기운을 맞게 되었다. 헌종은 외가인 풍양 조씨 쪽을 더욱 신임하여 이들에게 실권을 주면서 순조와 효명세자 이래의 숙원이던 왕권강화를 이루려고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규장각을 활성화하고 초계문신제도를 복구하여 친위 세력을 키우고자 하였으며, 군권장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외척 세도의 틈새에서 측근 세력 일부만을 기반으로 추구하는 왕권의 강화란 애초부터 그 한계가 있어 모든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⁴⁰⁾

추사 김정희는 56세(헌종 7년, 1841) 2월에 허유가 제주도로 찾아오자 그에게 그림과 글씨를 지도했고, 그 곳의 젊은이들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58세(헌종 9년, 1843년)이던 1월에는 이상적이 『勉學集』·『大運山房集』을, 그 이듬해에는 『皇朝經世文編』 120권을 구하여 추사 김정희에게 보냈는데, 추사 김정희는 변하지 않는 이상적의 정성에 감동하여 『歲寒圖』⁴¹⁾를 그려 주었다. 그리고 61세(헌종 12년, 1846) 때에는 姜璋를 가르쳤다.

추사 김정희는 63세(헌종 14년, 1848) 12월 19일에 석방 소식을 들었으며, 64세(헌종 15년, 1849) 1월 7일에 유배지를 떠나 약 8년 6개월 만에 예산 향저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해 6월경에는 용산 강산에 집을 마련해서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추사는 반 외척세력을 후원하던 헌종의 결단으로 해배되었다. 그러나 헌종이 그해 6월 6일에 23세로 승하하자, 궁중에서는 헌종의 후사를 누구로 할

38) 최완수 「秋史實記-그 波瀾의 生涯와 藝術」 『추사 김정희』, 중앙일보사 1985, p208.

39) 『憲宗大王實錄』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0. p45.

40) 유봉학, 「추사의 시대 -정치적 추이와 추사 일문」,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p56.

41) 후지즈카의 추사연구자료」, 과천문화원, 2008, p46~47.

것인가 하는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되었다. 이때 안김 계열은 강화도령 원범을 추천하였고, 권돈인은 중종의 후손인 이하전⁴²⁾을 지목하였다. 그런데 안김 세력은 19세의 원범을 순조에게 입양시켜 대통을 잇게 하고 순원왕후가 다시 수렴청정을 하게 하여 세도 기반을 더 견고하게 하였다⁴³⁾.

한편 용산 강상 시절의 추사 김정희는 예술가와 교육자로서의 생활을 조용히 이어갔다. 그러나 헌종의 3년상을 마치면서 대두된 조천 문제⁴⁴⁾로 권돈인이 예론 정쟁에서 밀려 탄핵을 받는 처지가 되면서 권돈인과 친한 추사 김정희의 처지도 다시 위태롭게 되었다. 권돈인은, 추사 김정희 66세 (철종 2년, 1851)이던 6월 16일에서 7월 2일까지 삼사와 옥당 등에서 비판과 공격을 받았는데, 그 횃수는 무려 18차례에 이른다. 그리고 7월 12일에는 교리 김회명이 추사 김정희를 배후 발설자로 지목하여 상소를 올렸다. 원래 삼사에서 요구한 것은 권돈인에게 중도부처를 시행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왕대비가 자기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삼사의 신하들을 질책하자 추사 김정희까지 끌어들이는 듯하다. 그러자 대왕대비도 7월 13일에 권돈인을 중도부처 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양사는 뜻을 관철시키자 7월 15일과 16일에는 더 심하게 대비를 압박하였다. 그리고 닷새 후에 양사는 추사 김정희와 그의 형제 및 제자들에게 벌을 줄 것을 청하는 긴 상소문을 올렸다. 다음은 그 상소문의 일부이다.

대개 그는 천성이 간사하고 독살스럽고, 본심이 비뚤어졌는데 약간의 재능과 기예가 있었으나 하나 같이 바른 도리를 등지고 지켜야 할 도리를 어지럽혔으며, 추측하는 데 교묘했으나 나라를 흉하게 하고 집에 화를 끼치는 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중략)… 매우 중요하고 엄한 조례(祧禮)에 감히 참견하여 형은 두목이 되고 아우는 심부름꾼이 되어 여러 곳에 선전하여 의견에 함께 참여하기를 요구했습니다⁴⁵⁾.

42) 이하전은 비범한 인물로 전해지며, 헌종의 조카 항렬이므로 가통상 하자가 없다.(김명숙, 추사 김정희의 정치활동과 정치론」한양대학교 출판부, 2004, p178.

43) 유봉학,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p45.

44) 권돈인은 진종(효장세자)의 위패를 종묘로 옮겨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안동 김 씨들은 조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통으로 보면, 진종은 철종의 증조(영조-진종-장조-정조-은언군-순조-전계대원군-철종)에 해당되고, 왕통으로 보면, 진종은 철종의 5대조(영조-진종-정조-순조-익종-헌종-철종)가 된다. 즉 안김 계는 철종을 순조에게 입양시켜 4대조를 5대조로 만든 것이다.

45) 蓋其碱性奸毒 宅心回曲 溥有才藝, 一是背經而亂常, 工於微摩, 不出兇國而禍家. …(中略)… 祧禮 之莫重莫嚴, 而乃敢參溲, 兄爲窩主, 弟爲使令, 到處遊說, 要爲獻議之與同.(『哲宗大王實錄』)1, p21

위 상소문도 추사 김정희의 부친이 당했던 것처럼 '말'을 트집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조례(祧禮)에 참견했는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허위 날조된 증상모략성 상소문⁴⁶⁾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 상소문의 행간에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특출한 재능이 제거되어야만 하는 요건임을 드러냈다. 그러자 대왕대비도 이 상소문을 보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며 묵살해 버린다. 그러나 양사에서는 7월22일, 또다시 합계(合啓)를 올렸다. 그러자 지쳐버린 대왕대비는 다음과 같은 비답을 한다.

김정희의 일은 매우 애석하지만 …(중략)…북청부에 귀양 보내고, 김명희·김상희는 향리로 추방하라⁴⁷⁾

이렇게 추사 김정희는 66세(철종2년, 1851) 7월 22일, 북청부 유배의 명을 받아 두 번째 유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다음은 북청으로 떠날 때의 장면이다.

공의 손을 잡고 통곡하며 말을 하지 못하니 공이 정색하고 둘째와 막내아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보통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자네들같이 글 읽은 사람들이 다만 이와 같은가?” 하고는 우선 웃으며 이야기하고, 또 위로하며 손수 책 상자를 깨끗이 정돈하였다.⁴⁸⁾

이와 같이 추사 김정희는 晩년에 거의 초탈한 경지에 이르렀던 것 같다. 그러나 단순한 세속적 초탈이 아니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동생들을 위로하는 추사 김정희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즉 인간관계에서의 의리와 달관자로서의 의지를 균형 있게 조화시킨 저력이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다. 추사 김정희는 북청에서도 그곳의 젊은이들을 가르치며 인재양성에 힘썼고, 금석학자와 고증학자로

46) 김명숙(2004), 「19세기 정치론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석사논문 p176~177) 조천 예송에는 김정희를 중심으로 추사 일문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비약적 추론이라고 생각한다. 조직적인 참여였다면 안김 계가 증거로 제시 하였을 것이다. 다만 추사와 권돈인은 교감을 나눈 정도였을 것이다.

47) 金正喜事, 爲之甚惜 …(中略)… 北靑府速憲, 金明喜·金相喜, 放逐鄉里. (주 38)과 同).

48) 握公手 慟哭不能言, 公, 正色顧中季曰, 唐人, 不足論, 讀書如君輩者, 亦若是乎, 且談笑且慰, 手整書麓 井井如也(吳世昌 편저, 東洋古典學會 역, 『國譯 權域書畫徵』 하, 시공사 1998, p866 인용.

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67세(철종 3년, 1852) 10월 9일, 북청에서 풀려나 거의 1년 2개월 만에 과천으로 올 수 있었다. 추사 김정희는 과지초당에 와서 벗들과 교류를 계속했으며, 여러 제자들에게 서화와 전각 등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상적을 통해 연경학계와 교류도 계속해서 시도하는 등 말년까지 학문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2. 역사적 의미 및 추사의 학문

1) 역사적 의미

역사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의 기록”⁴⁹⁾을 말한다. 역사에 대한 기록은 역사적으로 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시대를 중심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역사의 기록은 인물을 중심으로 전달된다. 역사적 인물의 삶은 과거의 사실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소통하고 미래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개인의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과 공유할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기에 역사적 사실과 인물의 삶을 현대적 의미와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언제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물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인물은 한 명일 수밖에 없으며, 각각의 삶의 모두 다르며, 인물의 삶의 궤적에 따라 이야기 배경이 바뀌고 각 장소에 남겨진 이야기는 다른 곳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이에 제주의 역사에서 제주사람의 삶의 양식을 역사적 상황에서 살펴보고, 추사 김정희 인물을 중심으로 제주유배기간 교학활동을 통해서 삶의 양식을 탐구해보겠다. 이렇게 얻은 결과를 종합하면 제주사람이 이루어놓은 문화의 실상과 그 속에 담겨진 의식과 특성, 문화를 더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제주지역 나

49)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

름대로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지방을 대표하는 역사이기도 하다. 제주의 역사적 인물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이 인물들의 본래적 매력을 잘 살리고 당대 인물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가치 창조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역사 인물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통시적 지혜를 구하고자 함이기에 깊은 탐구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추사의 학문

추사 김정희는 조선 후기 세도정치가 극심하던 시대에 절해고도에 격리된 채 오랫동안 유배생활을 하였다. 생명을 유지하기도 힘든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은 자연스럽게 추사 김정희의 학문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기에 좀 더 사실적인 역사의 소용돌이와 그 속에 침잠되었던 추사 김정희의 학문에 대한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정조(正祖) 이래로 청조(淸朝)를 왕래하던 학자들은 청대문화(淸代文化)를 흠모하여 청조의 학술사상과 문물제도를 찬양하고 수입하려고 했다. 이시기에 박제가, 신위, 정약용, 이덕무 등은 추사의 사우, 사제가 되어 그들의 영향으로 추사 김정희는 청대 학술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입연(入燕)할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있었다⁵⁰⁾.

추사 김정희는 24세 때 아버지 김노경을 따라 연행(燕行)하여 당시 청나라의 옹방강(翁方綱)과 완원(阮元) 등 대석학들과 만나 학업(學緣)을 맺게 되었다⁵¹⁾. 옹방강은 당시 78세이며 완원은 47세였다. 옹방강은 금석학(金石學)의 대가로서 『四庫全書』 편집시(編輯時)에 금석학을 담당한 대학문가(大學問家)로서 지위도 높고 연세도 높았으며, 완원은 경학(經學)의 대가로 『黃清經解』를 편찬한 대학자였다⁵²⁾.

추사 김정희는 24세의 젊은 사람이지만 이미 진사(進士)시험에 합격하고 경전에 정통하였으며 제자백가(諸子百家)에 능통한 문사(文士)였다. 그들과 학설을 논함에 기치가 내려가지 않는 대적이라고 하였다. 귀국 후에도 계속적인 교류를 통

50) 유승국, 「19세기 實學의 巨頭 秋史의 學問과 藝術世界」, 秋史研究, 2004, p12.

51) 유홍준, 『완당평전1』, 학교재, 2002, p127.

52) 유홍준, 『추사 김정희』, 일세를 풍미한 완당바람, 역사비평연구소 1998 여름호, p261.

하여 청대의 학술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일인자가 되었다⁵³⁾.

옹방강이나 완원은 학문적 성과를 조선의 추사 김정희에게 먼저 보이고 그 의견을 참고했다. 옹방강은 실사구시의 실학과라 하지만 전통적 고전을 간직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완원은 이에 부정한다. 여기서 추사가 입장이 다른 두 대가를 다 이해했다는 것은 그 학문의 이해의 폭을 짐작케 한다⁵⁴⁾.

이와 같이 추사 김정희는 청조의 실학사상을 받으면서도 종래의 성리학적 의리사상(義理思想)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학과 성리학을 조화하여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남다른 특징이 있다. 이것은 물론 옹방강의 영향도 있지만, 추사 자신의 학문의 폭이 넓기 때문이기도 하다. 추사의 학문은 넓고 크며 정밀하고 엄정하다. 그는 경학(經學), 금석학(金石學), 서법(書法), 시(詩)와 문(文)뿐만 아니라 불교(佛敎)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실로 추사는 학문의 정상에서 유(儒)·불(佛)·도(道)가 회통하는 경지를 체득했다고 할 수 있다.

추사 김정희가 활동하던 시대는 명나라가 망한 후 청나라를 대하는 조선의 분위기가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에 이롭게 쓰야 한다는 북학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으로 변해가는 시기였다⁵⁵⁾. 그 변화의 중심에 다리 역할을 했던 역관들의 활약 또한 주목하게 된다. 세한도의 또 다른 주인공인 이상적이 바로 역관이라는 사실이다. 이상적을 매개로 청나라의 소식이 제주도의 김정희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리하듯이 사제관계(師弟關係)에 의해 그 사람의 학문의 기저(基底)가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추사 김정희의 스승인 박제가의 사상형성에는 연암 박지원의 영향이 많았다면, 박제가의 전학(轉學)한 학문적 태도는 추사 김정희로 하여금 폭넓은 학문적 지식을 고루 가지게 하여 훗날 실사구시 설을 형성하는 기저(基底)가 되었다⁵⁶⁾.

학자로서의 추사 김정희는 어릴 때부터 실학자인 박제가와 교류를 통해 청나라의 선진문물에 대한 정보를 일찍 접하였다. 또한 추사 김정희는 새로운 서적을 구하기 위해 거의 일평생을 노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 뒤에는 한결같이 청

53) 신창호, 『유학자 추사 실학 교육을 탐구하다』, 서천사, 2006, p162.

54) 유승국, “앞의 책” p14. 인용.

55) 박철상, 『세한도』, 문학동네, 2010, p87.

56) 최경춘, 「秋史 金正喜의 學問論」, 東洋漢文學研究 第28輯, p315.

과 조선의 학맥이 동원되었다.

추사 김정희의 제자에는 홍선대원군을 비롯해, 역관으로 추사 김정희에게 청나라의 책을 구해 보내주던 이상적, 개화 상인 강위,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 등이 있다. 추사 김정희는 여러 분야의 학문을 두루 섭렵하면서 일생을 통해 보여준 진지한 노력과 고행, 그리고 고결한 정신적 지조는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표임을 보여주었다.

Ⅲ. 추사 김정희의 제주교학활동

1. 제주교학활동

추사 김정희의 제주도 교학활동 57) 전반적 분위기는 후일 그의 학통을 승계하고 『阮堂先生全集』을 편집하였으며 스승을 찾아 두 차례나 내도했었던 내종질 민규호가 쓴 『阮堂金公小傳』에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 "월근에서 글을 배우려고 찾아온 자가 대단히 많았다(遠近負笈者如市)".라는 표현에서 보듯 추사 김정희의 제주교학활동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귀양사는 집에 머무니 멀거나 가까운 데로부터 책을 짊어지고 배우러오는 사람들이 장날같이 몰려들어서 겨우 몇 달 동안에 인문이 크게 개발되어 문체 나는 아름다움은 서울 기풍이 있게 되었다. 탐라의 황폐한 문화를 개척한 것은 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전집 권1, 완당김공소전)」 58)

이렇듯 추사 김정희의 유배는 제주도 교육의 질적 변화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

57) 「敎學」이라는 용어는 「敎育」을 보다 넓게 개념화한 것이다. 원래 學 또는 學問 이라 하는 것은 지식의 체계 또는 지식의 체계를 쌓아 올리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한다. 學이란 글자의 原義는 敎이다. 敎는 배움 즉, 모방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先人의 경험 및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가르침(敎)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어원적으로 말해도 한편의 가르치고 한 편의 그것을 배우는 것이므로 '敎'와 '學'은 경험 및 지식의 전수를 각각 반대측에서 파악한 것이 된다. '敎'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 중요한 것은 '道'이다. 學이란 혹은 道를 배우는 것이다. 자사가 말한 「則天明 遵聖法 述此篇 爲師者 知所以敎 而弟子 知所以學」이라는 말과 則天明 遵聖法 述此篇 爲師者 知所以敎 而弟子 知所以學 이라는 의미에서 敎學도 되려니와 보다 현대적으로 교육과 학문을 통한 自己實現, 人格實現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敎學活動이란 교육과 학문을 통해 自己實現 혹은 人格實現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형식, 비형식의 교육적 제반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開化敎學活動이란 조선 말기 開化派들이 행한 교육적 계몽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開化敎學活動이란 조선 말기 開化派들이 행한 교육적 계몽활동 전반을 총칭하는 표현으로서 근대적 내용의 교학활동을 의미한다. 참고 : 양진건. 秋史文獻拔萃 學術調査 보고서, 2005, p23 재인용.

58)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卷1, 阮堂金公小傳, "居謫舍遠近負笈者如市纔數月人文大開彬彬 有京國風耽羅開荒自公始". 참고 : 양진건 앞의 책, 재인용.

용하였다. 무엇보다도 추사 김정희는 제주인들과 흥학교화의 동화(同化)를 통하여 교육 내용의 수준 높은 자극과 변화를 예고하였는데 왕성한 사제관계가 이를 대변한다. 제자가 삼천 명이라는 「阮翁 門下三千士 不負才命獨出群」의59)의 시어(詩語)가 시사하듯 그만큼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으며 제주도에서도 예외가 아니며 많은 사람들과 사우강습이 가능할 수 있었다. 제주도민들과의 신분계층은 양반사대부를 제외한 넓은 의미의 하층계층으로60)서 소위 위항계층61)(委巷階層)이었다.

조선조 제주교육의 질적 변환의 구체적 예증은 추사 김정희와 사우강습을 통해 발흥한 위항문화 운동으로 나타나는데 제주도의 이 운동은 주로 추사 김정희와 만남을 가졌던 제주인들이 주도하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문하중에 뛰어난 분으로서는 제주인 김구오(金九五), 대정인 강도순(姜道淳), 광지인 박계첨(朴階瞻) 등은 널리 알려졌으며, 제주필원으로 꼽힌다62). 추사 김정희는 금석의 가치를 서체에 직결시키고 서법연구의 주안점을 금석학에 두었기 때문에 교학활동에 있어 서도의 강조는 그의 당연한 학문적 방법론이었다. 특히 (詩)·서(書)·화(畫)일치의 학문적 방법론은 제주유림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영향력이 있었다. 많은 유배인들의 교학활동이 추사 김정희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있었지만 그 가르침이란 대부분이 예학의 사장 중심이었으며 다분히 관념적인 것이었기에 그의 서도 정신은 곧 그대로 스스로를 교육하는 마음이었고 제자들을 교육하는 자세이기도 하므로 그의 예술교육의 사상은 그만큼 영향력이 실질적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실사구시설에 입각한 그의 경험론적 교육과정63)은 제주유림의 분위기에 신선한 경종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초전적 역할의 인물들의 활동상에서도 익히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

59) 『姜瑋全集』上, 「同白小香金松年再會紅館送別」

60) 허대옥 . 제주도 대정지역의 교육사적 전통 석사학위 논문 .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 2004, p48.

61) 위항이란 원래 사대부와 서민의 중간 계층인 중인 신분계층이 사는 곳을 말한다. 실학의 대두로 말미암아 생활에 여유가 생긴 의학, 역학, 산학, 율학, 약학 등 이른바 잡학에 종사했던 전문지식인인 이들은 처음에 관계 진출에 뜻을 두고 위항문학이라고 한다. 추사가 제주도에서 만난 제주도 지식인들은 대부분 중인 신분이었으며 이들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문학적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사(詩社)를 결성하거나 전각운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를 두고 양진건은 위항문화 활동이라고 하였다. 참고 :양진건,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6, 2003, P98.

62) 양순필, 양진건, 「秋史의 濟州 教學活動 研究」 耽羅文化 6, 1988, p56, 재인용.

63) 여기에서 '교육'은 '학문(學問) 동일한 의미로 쓴다. 따라서 '교육의 과정'은 '배우고 묻는' 학문의 과정으로 내용상 삶 전체 영역에서 논의되는 포괄적 의미이다.

제주도의 위향문화운동은 유배인 추사 김정희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학예적 흐름이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근본적으로 이 흐름은 청(淸)의 예원(藝苑)을 풍미하고 다시 조선 학예에 영향을 미쳐 추사 김정희가 삼절의 고봉을 이루고 다시 그의 문하에 중인 출신의 무수한 제자를 배출함으로써 기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의 이 같은 문화운동은 조선 말기 “굴원(橘園)”시회의 모임과 활동으로 계승된다⁶⁴⁾.

이러한 문화운동으로서 교육내용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추사 김정희의 학문관에서 기인한다.

당시 조선 최고의 문화수준을 향유하고 청나라의 문화와 학자를 접하고 절해고도 제주도로의 유배편력을 통하여 추사 김정희가 절실히 느낀 것은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욱 더 문화가 인간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개인의 타고난 재능의 계발은 어느 지역 어느 계층 어느 신분에서 처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재는 거의 없고 평범한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며 그 평범한 재능을 비범한 것으로 바꾸는 것은 개인이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라기보다 차라리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계승 즉 교육에 의해서라는 것이 추사 김정희의 생각이다.

따라서 그는 궁벽한 절해고도 제주도에도 문화의 계발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였고 중인계층의 시재를 유난히 반가워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⁶⁵⁾

추사 김정희는 자신이 속해 있는 동양문화권의 정상에 올라 그 문화의 시원과 맥락 지향점을 가늠해 보는 것을 목표로하면서 문화에서 소외된 지역, 소외된 계층에 남다른 관심과 정열을 가졌던 것이 추사 김정희였다.

이러한 까닭에 열악한 환경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유배지에서도 문하에 많은 사람들의 내왕이 빈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배지에서 추사 김정희가 제주인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은 바로 그의 덕행과 학문이 제주인들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제주인들에게 바치는 교육적 관심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阮堂先生慶州金公謂 正喜墓」에도 추사 김정희가 "제주에 거처한 8년 3개월 동안 조용히 지내며 책을 읽고 제주 사람들을 가르치니, 인문이 크게 열렸다"⁶⁶⁾고

64) 양진권, 濟州 五賢의 教學活動 研究, 耽羅文化 7, 1988.2. p230, 재인용.

65) 김정희, 『국역완당전집』 1권, 숲, 1985, p153.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추사 김정희의 노력은 우선 자신에 대한 철저한 학문적 긴장과 그리고 제주도의 나쁜 풍조에 대한 직시에서 비롯되었다. 학문적 긴장이란 유배 때문에 탈진할 수 있는 자신을 재촉하여 마음의 고통스러움과는 상관없이 예전처럼 글씨를 쓰고 글을 읊으며 지내는⁶⁷⁾ 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제주도의 나쁜 풍조라 함은 단적으로 “도도평장(都都平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지⁶⁸⁾의 풍조를 말한다.

내가 여기 처음 왔을 적에 자못 구경(九經)의 빛을 보여 주고 문선(文選)의 이(理)를 설명해 주었는데 모두가 당황만 하고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마치 모기부리가 철벽을 만난 것과 같으며 혹 와서 묻는 것이 있다면 이는 『사요취선(史要聚選)』 따위였고 아니면 무슨 글제의 서두와 목을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는 것뿐이었소. 대개 그들의 평소 건문이 옛 삼가(三家) 촌락의 도도평장(都都平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그럴 수밖에 또 있겠소. (전집 권4, 장인식에게 제13신)⁶⁹⁾

이러한 풍조를 직시하며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수준 높은 자극과 변화를 예고하였다.

1) 스승의 역할 강조

유배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추사 김정희의 교육관에서 기인한다. 특히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 않고는 교육에 관한 한 그 어느 것도 가능치 않다는 것이 그의 교학사상의 핵심이었다. 이는 마치 강희시대에 직예성 용성(容城)의 현령이 되자 그 고을의 선비를 모아 강회를 열어 "아무리 어리석은 남녀라도 모두 현인들의 자손이다.(愚夫愚婦貴賢人種子)" 라고 하여 교육의 근본을 일으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하였던 조선조사림 교학사상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제주목사였던 장인식에게 보낸 서간을 보면 그런 태도가 뚜렷하다.

66) 『阮堂先生慶州金公謂正喜墓』, "居濟九年蓋 閒適濫書訓 迪州人人文大開" 참고: (양진건(2005). p23.

67) 『阮堂先生全集』 卷2, 興懋兒, 其三, "此心良苦吾如舊吟藝" 참고: (양진건(2005). 앞의 책, 재인용.

68) 蒙學訓長이 아동에게 論語를 가르치면서 郁都平文을 잘못 알고 都都平丈으로 가르쳤다는 뜻에서 문자를 변변히 모으는 사람의 무지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69)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卷4, 興張兵使, 其 十三 “走之初來也 頗示之以九經之色 設之以文選之理皆 倘恍不人 如蚊嘴鐵壁 或有來問者 是史要聚選 不爾則某題之頭項 當作如何 蓋其平日見聞不出此三家村中都都平丈耳.” 참고: 양진건(2005), 앞의 책, p24, 재인용.

「사람의 제주란 각기 천분이 있고 당초에는 남북의 한계가 없는데 특히 눈 밝은 사람의 개발·인도가 없었던 것이지요. 과연 혜식(慧識)이 초월하고 특이한 자가 있는지요. 이 고장의 큰 병폐는 안일한 데에만 주저앉고 태산의 정상을 향하여 다시금 한걸음 더 내딛고자 아니 하니 매양 탄식하여 마지않사외다.」(전집 권4. 장인식에게 제13신)」⁷⁰⁾

인간의 문화는 실은 철저하게 학습되고 계승되는 것이며 문화수준의 지역적 차이는 인종의 재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하여 개발되고 계승된 문화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임을 추사 김정희는 철저히 믿고 있었다. 따라서 낙후된 문화 수준을 끌어 올리고 묻혀 있는 재능을 개발하는 것은 스승의 인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았다. 전혀 낮은 땅에 도착한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의 척박한 교육환경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는다. 사람의 본성은 남북이 서로 다른 것이 없지만 스승의 없으므로 발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서 추사의 시각은 교육의 필요성을 넘어 그 중요성까지 깊이 열리고 있다.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스승의 없고 교육체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풍토 와 인물"이야말로 그러한 점이 절실하다고 추사 김정희는 여겼다.

— 「이곳의 풍토와 인물은 혼돈 상태가 아직 벽파(關破)되지 않았느니, 그 우둔하고 무지함이 저 어만(魚蠻)·하이(蝦夷)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또 한 무리를 초월한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들이 읽은 것은 『통감』, 『맹자』 두 종류의 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 두 가지 책만 하더라도 어디에나 구애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책비(責備)할 수 있겠습니까. 타고난 본성은 남북이 서로 다를 것이 없으나, 다만 그들을 인도하여 개발시켜 줄 스승이 없으므로, 슬피 여기고 불쌍히 여겨 이와 같이 탄식을 하는 것이 정히 이곳을 위해 이른 것입니다.」(전집 권3, 권돈인에게 제5신)⁷¹⁾

70) 『阮堂先生全集』, 卷 四, 與張兵使, 其十三, “人才各有天分初無界於南北特無明眼人開導之耳 果有慧識超異者 否此中大柄在安於惰欲向泰山頂上再進一步每不已” 참고: (양진건(2005). 앞의 책 p25. 재인용.

71) 『阮堂先生全集』, 卷 三, 興權藝 齋 其吾, “此中風土人物 天荒尚未關破 椎魚無知 卽 呵異於魚蠻蝦夷 其中亦 有秀拔超倫之奇 其所讀 不過通鑑孟子兩種書而已 雖此兩種 亦可往而礙 但何以如是責備耶 天臘無南北特無道 楊開發導師 悲悶爲爾嚮難者 政爲此地道耳” 참고: (양진건(2005). 앞의 책 p25. 재인용).

추사 김정희는 교육이 타고난 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생각이 미쳐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맹모삼천지교 고사에서도 익히 말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사 역시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환경의 중요성⁷²⁾에 대해 누구보다도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추사 김정희는 자신이 속해 있는 동양문화권의 정상에 올라 그 문화의 시원(始原)과 맥락(脈絡) 지향점을 가늠해 보는 것을 목표로하면서 문화에서 소외된 지역, 소외된 까닭에 유배지에서도 문화에 많은 사람들의 내왕이 빈번할 수 있었다.

열악한 환경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문화에 제자들의 내왕의 빈번하다는 것은 사도(師道)가 존엄하다는 것과 관련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곧 오늘날 교사의 권위문제이기도 하다. 유배지에서 추사 김정희가 제주인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은 바로 추사의 덕행과 학문이 제주인들의 표상이 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제주인들에게 바치는 교육적 관심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승의 가르침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엄격한 스승과 온화한 스승이다. 엄격한 스승은 자신에게도 엄격하고 학생에게도 엄격하다.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다. 온화한 스승은 차근차근히 타이르면서 언제나 온화하고 성내지 않는다. 그는 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그의 온화함 때문에 친화감을 주면서도 스승으로서의 威望을 손상 받지 않는 분이다. 추사 김정희가 바로 그러한 스승이었다. 따라서 추사 김정희는 지위 지향적이기보다는 과업지향적인 스승이었다. 과업지향적일 때 스승의 가르침은 철두철미 합리적 방안이 된다. 그렇지 못할 때 스승의 가르침이란 우월감의 과시 정도에 머무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업지향적인 스승은 각고구학(刻苦求學)의 본질적인 문제로 가르침의 문제를 견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추사 김정희는 生公設法 衆石點頭⁷³⁾의 예를 들어 제주도 형편을 거론하면서 도도평장의 돌 같은 무지를 깨우쳐주지 못하는 자신의 가르침에 관해 궁극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그것은 과업 지향적 스승에게만이 가능한 내부통제의 정신이다. 추사 김정희는 교육에 있어서 가르침의 중요성을, 스승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력히 대변한 셈이다.

72) 원용석, 「阮堂 金正喜의 教育觀 研究」, 『漢字漢文教育』, 第九輯, 2002.10, p291.

73) 梁의 高僧 竺道生이 虎丘寺에서 經을 강하면서 돌을 모아 청중을 가장한바 그 돌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다는 얘기에서 비롯되었다.

2) 경험적 수련의 강조

추사 김정희의 교학사상을 관류하고 있는 경향은 근본적으로 경험주의에 근거하고 있다⁷⁴⁾. 그는 선험적 정신성 혹은 천부적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천부적 정신능력은 부단한 경험적 수련의 결과로서만 발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유교의 경전을 직접 섭렵하여 공자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불경을 읽어 석가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그밖에 무수한 전적들을 섭렵하면서 인간 정신의 실체를 체험하지 않고는 불(佛)의 경지도 선(仙)의 경지도 율(儒)의 경지도 그 어떠한 정신적 경지도 터득될 수 없다는 것이다⁷⁵⁾. 그리고 그들의 정신적 경지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적으로는 전수(典受)의 진위 여부 즉 실증성과 합리성을 무엇보다도 중시했던 것이다. 이것은 곧 추사 김정희 특유의 실사구시 정신이다. 실사구시란 말 그대로 '사실에 바탕을 두어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방법론을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현들이 공부했던 것을 구체적인 실학의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것이 실제에서 이루어져서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면 어떤 내용이라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實事求是說」을 마무리 하고 있다⁷⁶⁾.

추사 김정희는 "훈련 못 받은 백성을 줄지에 풍운조탁의 전차 속으로 몰아넣는다면 그들이 능히 구울에 맞을 리가 있겠는가."라고 하여 자기의 영역 개척과 같은 교육의 과정이 없다는 것은 마치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된 오합지졸의 군영과 같으며 그것은 또한 제주도의 현실적 처지이기 때문에 추사 김정희는 거듭 후천적 수련 과정으로서 교육을 강조하였다. 추사 김정희의 이러한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수련에 대한 구분은 곧 체험적 수련을 강조하는 경험주의적 교육에 대한 그의 원칙을 반영하는 또 다른 논리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문화양식에서 그 정신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맹목적 행위 모방은 실은 문화행위의 틀에 매어 있는 것일 뿐 문화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행위에서 정신성은 다양한 방식을 취하여 표출된다.

따라서 다양한 제반 문화양식에서 중시되는 것은 문화양식이 인간 정신의 표

74) 양진건, 「추사문헌발췌 학술조사 용역보고서」 제주대학교, 2005, p27 재인용.

75) 양진건, “앞의 책” p28, 재인용.

76) 원용석, 「阮堂 金正喜의 教育觀 研究」, 『漢字漢文教育』, 第九輯, (2002.10), p298.

출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인간 정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표출하는가 하는 사실 즉 양식화의 원리이다. 추사 김정희의 교육론은 이러한 제반 문화양식은 그 양식 특유의 정신성 표출 방식을 가진다는 인식, 그리고 그 방식은 철저히 계승되고 공유되는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그리고 그것은 예론(藝論)의 교육적 기저와도 상통한다. 이러한 경험주의적 세계관은 일체에 대한 신비주의적 인식을 극력 배격한다. 대개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의 준비도 여하에 의하여 촉발되거나 무효화되기 마련인데 특히 신비주의적 인식이란 준비도의 부실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추사 김정희는 글씨를 쓴 종이에서 무지개가 일어난다는 제주도 사람들의 신비주의적 인식을 매우 통박하였다.

<섬 아이에게 보이다>

유수암(流水巖) 강생(姜生)이 내가 쓴 글씨 두어 장을 벽에 붙였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무지개가 나타난 이상이 있어 마치 빛을 내뿜는 듯 하니 보는 자는 놀라며 붓 정기에서 피어난 것이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은 우연히 산꼭 간에 정기가 저축 배설되는 바 있어 서로 감촉한 때문이지 어찌 종이에서 무지개가 일어날 이치가 있겠는가. 이를 써서 도동에게 보이어 의심을 푼다. 저 오대(五臺)·아미(峨眉)의 불등(佛燈)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이두의 광망이란 따라갈 수 없거니와 미가의 서화도 어찌 감히 같을 손가 우연히 흐르는 물 마을 집 바람벽에 하는 솟고 별을 쏘는 기기(奇氣)가 보인 게지77).

위의<示島童>이라는 시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에서 무지개가 피어났다는 예찬하는 제주도 사람들의 신비주의적 인식에 대한 질책과 동시에 스승의 이상화에 대한 경고로 읽히는 대목이다. 경험성을 중시하는 이러한 사유경향은 제주 교학 활동에 있어서 추사 김정희의 핵심적인 교학사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사람들의 추사 김정희에 대한 신비주의적 예찬은 끊이지 않았다. 추사 김정희가 겨울 한라산에 올라 언 먹을 입김으로 녹이며 글씨를 쓰는데 남들은 먹이 얼어붙어 글씨를 쓸 수 없었지만 추사 김정희만은 신비를 빛내는 글씨를 썼다는 얘기를 전한다78).

77) 『阮堂先生全集』卷十, 詩, 示島童, "派水巖姜生 以余書數紙 貼之壁上 其朝忽有虹見之異 若放光然 見者警詫 以爲筆精所發 是偶然有山俗間精氣所蓋 洩相感觸之 寧有紙面起虹之理 書此示島童輩以解之 五臺峨眉之佛燈 類是也" 참고: 양진건(2005). 앞의 책 p29 재인용.

78) 양순필, 양진건, 「秋史의 濟州 教學活動 研究」 耽羅文化 6, 1988, p69 재인용.

추사 김정희가 경험성을 중시하는 자세는 제주도 대정향교의 학생들 공부방인 동체에 써준 ‘의문당(疑問堂)’이라는 현판에서도 나타난다⁷⁹⁾. 현종 12년(1846) 11월에 추사 김정희가 쓰고 제주도 사람, 향원 오재복이 새긴 이 현판이 왜 하필 의문당인가? 인간이란 원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고 해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몰랐던 사실들을 주체적으로 알려고 노력한다. 무지한 까닭에 더욱 더 알고자 한다는 말이다. 무지를 자각한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관습이나 전통 등이 진정으로 옳은지를 곰곰이 되씹어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사는 공부라는 것이 우리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인 상식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대정향교의 학생들에게 일깨우고자 했던 것이다⁸⁰⁾.

추사 김정희는 문화 전반, 특히 학문과 예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개인적 친분으로 간곡히 당부하거나 백과나 이원조와의 경우에서 보듯 논쟁하는 방법에 의존, 주변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었다⁸¹⁾. 특히 그의 학문적 논쟁을 통한 자신의 유배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대체로 학술논쟁은 쌍방이 지니는 주장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면서 상대방의 이론적 주장을 깨뜨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장점은 더욱 발휘되고 단점은 천하에 공개된다. 이것은 학문의 발전에 매우 귀중하다. 더욱이 논쟁의 초점을 세상에 내걸어 공표하는 문제는 논쟁의 커다란 공헌이다. 무엇보다 추사 김정희의 공헌은 논쟁의 초점을 제주인들에게 공표함과 동시에 더불어 하는 논쟁정신을 발휘시켰다⁸²⁾, 는 사실에 있다.

근본적으로 그의 관심은 비록 동양문화권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중국 문호에 깊이 경도되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조선의 문화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열망에 서였으며 더 나아가 제주도와 같은 낙후된 지역의 낙후된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 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 같은 추사 김정희의 흥학교화의 노력으로 제주도에서는 실학의 분위기에 입각, 교학적 쇄신의 계기를 맞게 된다⁸³⁾.

79) 유흥준, 『김정희』, 학고재, 2009, p216.

80) 김봉옥, 「추사 김정희의 유배서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p57.

81) 유흥준, 『김정희』, 학고재, 2009, p216.

82) 고흥근, 「秋史의 白波妄證 十五條」 학술원논문집, 제14집, 1975. p107.

3) 책 읽기의 교육철학

추사 김정희가 책읽기를 얼마나 좋아했는가는 우선 그의 장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의 장서는 수만 권으로 전한다. 예산 추사 고택에 소장되어 있던 이 장서가 화재로 불타버린 것은 1910년 무렵이라고 한다. 그나마 추사 김정희가 자필로 쓴 장서 목록이 남아 있어 그 방대한 규모를 어림짐작할 수 있다. 종(種)수로 약400, 책(冊)수로 약 7천을 헤아린다. 실제로 규장각 소장의 『복초재시집(復初齋詩集)』 12책, 육당 최남선 구장의 「설문해자」 36책, 소전 손재형 구장 『도정절(陶精節)시집』 2책, 송은 이병직 구장 『국조화징록(國朝畫徵錄)』 4책, 후지츄카 구장의 『전역왕원실유고(전역왕원실유고)』 14책 등에 추사 김정희의 장서인(藏書印)이나 표제(表題)가 붙어있다⁸⁴⁾.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독서다.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독서를 하고, 읽은 책들은 어떤 분야 어떤 성격의 것이고 독서 방법은 어떠했는지를 알면 한 인간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대체로 독서는 인격 형성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러나 독서 활동은 비단 인격만이 아니라 당대의 시대정신과 지적풍토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관여한다.

추사 김정희가 유배지에서 교육적 긴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부단한 책읽기⁸⁵⁾ 때문이다. 추사 김정희가 정력적인 책읽기의 이유는

83) 고범석, 「제주유배문화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일 연구」,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P16.

84)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1998년 겨울), 역사비평사, 1998, P317.

85) 제주도에서 추사 김정희가 읽은 책들은

- ① 『본초(本草)』: 명나라 이시진의 편찬한 『본초강목(本草綱目)』 52권.
- ② 『시순(詩醇)』: 청나라 고종이 편찬한 『어선당시군(御船唐詩醇)』 47권.
- ③ 『율수(律髓)』: 원나라 방회(방회)가 편찬한 『영규율수(瀛奎律髓)』 49권.
- ④ 『서화보(書畫譜)』: 청나라 손악령 등이 봉지찬한 『어정패문제서화보(御定佩文齋書畫譜)』 100권.
- ⑤ 『주역절중(周易折中)』: 청나라 성조가 어찬한 『어찬주역절중(御贊周易折中)』 22권.
- ⑥ 『장진첩(藏進帖)』: 명나라 만력(萬曆) 진원서(陳元瑞) 각(刻)의 『발해장진첩(渤海裝眞帖)』 8권.
- ⑦ 『천자문(千字文)』: 양나라 주홍사가 편찬한 『천자문』.
- ⑧ 『영비경(靈飛經)』: 도경(道經)의 일종.
- ⑨ 『예해주진(藝海珠塵)』: 청나라 오성란이 편찬한 불분권(不分卷) 48책.
- ⑩ 『해지(海志)』: 청나라 위원(魏原)이 쓴 서양문물 소개서인 『해국도지(海國圖志)』.
- ⑪ 『기정시첩(岐亭詩帖)』: 소동파(蘇東坡)가 황주에 귀양가 있으면서 지은 시첩.
- ⑫ 『청애당석첩(淸愛堂石帖)』: 청나라 유용이 법첩으로 만든 『청애당석첩(淸愛堂石帖)』 4권.
- ⑬ 『고기관식(古器款識)』: 철첩(鐵帖)이 만든 금문도록 『십륙장락당고기관식(十六長樂堂古器款識)』.
- ⑭ 『한예자원(漢隸字原)』: 남송 누기가 편찬한 서학(書學)에 관한 책.
- ⑮ 『뇌뇌락락서(磊磊落落書)』: 실학자 이덕무가 쓴 책.
- ⑯ 『당공첩(唐空帖)』: 법첩의 일종.
- ⑰ 『주역(周易)』: 유교 경전(經典) 중 3경(三經)의 하나인 『역경(易經)』.
- ⑱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 중국 삼국시대의 역경승(譯經僧)으로서 오(吳)나라에 불교를 전파한 승려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유배생활이 강요하는 폐쇄성에 상대하는 서적의 개방성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적의 개방성은 곧 정신의 개방성을 유도하며 따라서 유배적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개방성에의 천착은 당연하였다.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왕성한 책 읽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추사의 남다른 의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자 이상적의 덕도 컸다.

이상적은 현종 7년(1841) 10월부터 현종 8년(1842) 3월까지 제 5차 여행을 다녀왔다. 1842년 10월부터 1843년 3월까지 제6차 여행을 다녀오면서 추사 김정희가 부탁했던 책들을 구입한다. 직접 구할 수 없는 것들은 구입을 부탁한 뒤 서울에서 책을 받아 1843~1844년에 걸쳐 제주도로 보내주었다⁸⁶⁾.

그런데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에 유배되어 사실상 정치적인 생명이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은 정치적 위험성을 무릅쓰고 모든 권세와 이익을 상실한 추사 김정희에게 변치 않는 마음으로 중국의 새로운 자료들을 구해서 제주도까지 보내주었다. 그 덕에 추사는 꼭 한번 보고 싶었던 『만학집(晩學集)』과 『대운산방문고(大雲山房文藁)』 그리고 『황조경세문편(皇朝經世文編)』을 이상적에게 부탁했다가 1843~1844년에 제주도에 전해 받고 제자의 변치 않는 마음과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세한도'를 그려주게 되었던 것이다.

추사 김정희의 왕성한 독서는 실사구시의 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경전을 폭넓게 연구하기 위해 추구하는 박학다식의 실천이다. 추사는 성현의 도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에서 박학의 대상을 경전에 대한 풍부한 독서로 설정했던 것이다.

추사 김정희의 책에 대한 집념은 대단했다. 집에 소장해 둔 것들을 일일이 기억해내고 제주도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그의 책에 대한 기억력 또한 과연 대단했다. 집안 구석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책은 물론이며 제목이 없는 책이나 친척에게 빌려준 책까지도 기억해 냈다. 손수 베끼 책이 수백 권에 이른다고 해서 실학자 이덕무는 자신을 가리켜 책만 읽는 바보라는 뜻의 간서치(看書痴)⁸⁷⁾라 했지만 추사 김정희 역시 그에 모자람이 없었다.

추사 김정희가 인편에 책을 주고받는 것을 목격하고 제주도 사람들도 추사 김

강승희가 쓴 책. 위 目錄은 『阮堂先生全集』에 실린 秋史의 流配書翰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참고 : 심경호, 『선비의 마음을 읽다.』, 한얼미디어, 2006, p295.
86) 제주일보, 「세한도, 제자의 변치 않는 마음·정성에 탄생하다」, 2011.04.26.
87) 경향신문, 「조선시대의 신동, 특별한 게 있었다.」, 2003,11,28.

정희에게 책을 부탁했었다⁸⁸⁾. 당시 제주도 대정현 주민들이 책을 구하기 위해 책 접을 만들어 돈을 각출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추사 김정희의 책읽기는 자신에게만 국한되었던 작업이기보다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추사 김정희가 읽은 책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청나라 위원이 쓴 『해국도지(海國圖志)』⁸⁹⁾이다. 내용은 세계 각국의 지세, 산업, 인구, 정치, 종교 등 다방면에 걸쳐 서술한 것으로 개략을 저자 스스로가 18개 부문으로 나누었다. 『해국도지』는 박규수와 역관 오경석 등에 의해 조선에 소개되고 개화 사상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추사 김정희는 한편으로는 서양으로부터 전해진 천주교와 태양력을 반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서양의 과학 기술을 모방하여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즉 그는 서양의 침략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서양을 정확히 알고 그 장점을 중국에 활용하고자 했던 『해국도지』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⁹⁰⁾.

『해국도지』는 1842년에 완성되어 1844년에 간행되었는데 추사 김정희는 1845년에 벌써 이 책을 제주도에서 입수했다⁹¹⁾. 그는 1845년 막내아우에게 보낸 서한에서 “해국도지는 요사이 좋은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네. 그러나 눈 어두운 것이 이와 같아서 예전처럼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 아쉽기 짝이 없군.” 이라고 쓰고 있다. 그는 또한 이 책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책에다 베끼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추사 김정희의 열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또한 그는 친구 권돈인에게도 “해국도지는 꼭 필요한 책이며 나에게 있어서는 다른 집의 많은 보물과 맞먹는다.” 라고 쓰고 있다. 이렇듯 ‘해국도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다름 아닌 근대조선의 개화사상을 낳는 한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⁹²⁾ 제주도의 서책 형편에서는 추사의 장서 자체가 하나의 충격이었으며 격조 높은 교육적 강화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독서 그 자체만으로도 제주인에 끼친 영향은 크다고 하겠다.

88) 양진건, 「濟州道研究 九輯」, 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 教學思想 研究, 1992, p209 재인용.

89) 1844년에 강소성 양주에서 60권으로 간행되었으나, 저자가 그 후 보정을 가하여 1852년에 100권으로 간행하였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90) 제주일보, 「세한도, 제자의 변치 않는 마음·정성에 탄생하다」, 2011.04.26.

91) 진명승, 「해국도지의 조선개화운동에 끼친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2, p26.

92) 김태능, 「濟州道史論考」, 세기문화사, 1982, p204.

IV. 秋史 金正喜의 師弟關係

1. 추사 김정희의 스승관

추사 김정희는 그의 나이 15세 때 당시 나이 42세이던 조정 박제가를 첫 스승으로 만나게 되어 박제가의 4차 연행 바로 직전해인 1800년부터 시작하여 연행을 다녀온 1801년 9월 이전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사사(師事)하였는데 박제가는 연암 박지원의 우수한 제자(弟子)였으며 다산 정약용의 친애하던 학우(學友)의 한 사람이었다.⁹³⁾ 추사 김정희의 스승인 박제가의 사제관계를 검토해 보면⁹⁴⁾ 추사 김정희의 정신사적 위상을 일별케 되는데 17세기 일련의 사상적 관성운동인 실학의 교학계보 형성에 깊게 동참했음을 알 수 있다.⁹⁵⁾ 금정이나 연암, 다산 등은 당대의 선진적인 사상가들로서 추사 김정희는 이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학문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고 약관의 나이에 몸소 학파의 원류⁹⁶⁾로서 두각을 보였던 것이다.

추사 김정희는 박제가와 연경 예방으로 인연을 맺는 옹방강과 완원 등으로부터 청조학적 전통을 승계함으로써 소위 실사구시적⁹⁷⁾ 학문 방법론을 완성케 되는데⁹⁸⁾ 이즈음 추사 김정희의 교학사상은 실학적 면모 외에도 선가적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는 특징을 드러낸다. 즉, 추사 김정희는 비록 성장해 온 교육과정과 입신의 대외적인 목적은 유교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가 지성인이 되고 난 후부터의 형성된 사상은 선가적(仙家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같은 사상연혁에 도

93) 양진건 (1989), 「秋史 金正喜의 師弟關係 淵源考」. 申榕俊 博士 華甲 紀念 論 . p243, 재인용.

94) 박제가의 학통은 양득중→홍대용→박지원→박제가로 이어지는데 이를 크게 이용후생 학파라 부른다. : 참고 : 송재소의 10명, 『박지원·박제가 새로운 길을 찾다』, 경기문화재단, 2006, P102.

95) 양진건 위 책 p244 재인용.

96) 신창호, 『교육학 개설』, 「우리 교육의 본질과 흐름에 관한 탐구」, 서현사, 2005, p152.

97) 實事求是, 比語認學問最要之道 (阮堂先生全集 卷1, 實事求是說) 가치판단의 기준을 사실에서 구하고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강행만이 실사구시에 상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가장 중요한 학문의 방법으로서 실사구시를 들었다. 참고 : 신창호, 「추사 김정희의 인간관과 교육과정론」, 고려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2005, p51.

98) 阮堂先生全集, 卷1, 實事求是說 「實事求是此語乃學問最要之道」

움을 준 사람은 초의 의순의 영향이었다⁹⁹⁾.

교육 [學文] 의 목적이 확인되었다면 그 길을 가야 한다. 추사 김정희는 그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스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육에서 스승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 한다'는 말이 있듯이, 스승의 존재는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승의 역할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그 존재는 근본적으로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추사 김정희는 『적천리설』에서 스승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천리길을 가는 사람이 막상 문을 나섰을 때는 갈팡질팡하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다. 따라서 반드시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 그때 마침 바르고 큰 길을 알려 주고, 또 굽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정성스럽게 일러 줄 것이다.

“굽은 길로 가면 반드시 가시밭으로 들어가게 되고, 바른 길로 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라고.이 사람이 일러준 가르침이야말로 성심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阮堂先生全集 券1』)¹⁰⁰⁾

스승은 먼저 깨달은 사람이다.¹⁰¹⁾ 때문에 교육의 목적은 물론 그 내용과 방법 까지도 체득하고 있다. 추사 김정희가 말한 '아는 사람' 이요 자세히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스승은 천릿길을 갈 때, 길을 자세하고도 정성스럽게 일러주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굽은 길 [잘못된 길] 로 들어서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¹⁰²⁾이다.

추사 김정희가 스승을 중시한 까닭은 그의 교육 방법론이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그는 「실사구시설」에서 스승의 역할을 간략히 언급한 적이 있다.

99) 진영민, 「초의 의순의 선사상 연구」 『선문사변만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학위논문, 2007, p63.

100) 當其出門而行, 固壤長何之, 必詢於識道之人, 治其人告以正大之路, 又細指其邪徑之之不可由者, 慤慤然以爲由其防, 必入於荆棘, 由其正, 必得其歸, 人之爲言, 可謂盡心矣.. 참고: 김혜숙, 『추사 문장에 침윤된 추사의 학문』, 추사연구제 1호, 학술논문, 2004, p52.

101) 『通書』 「師」에서는 스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깨친 사람은 뒤에 깨칠 사람을 깨우쳐 주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밝음을 찾아야 스승의 도가 확립된다.(先覺覺後覺, 闇者求於明, 而師道立矣.).

102) 신창호, 「추사 김정희의 인간관과 교육과정론」, 教育問題研究, 제 23집, 고려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2005, p65.

한 대의 유학자들은 경전을 전수하거나 훈고할 때에, 모두 스승으로부터 이어받는 것이 있어서 그 짜임새가 지극히 정밀하고 확실하였다. 성·도·인·의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사람들이 모두 잘 알고 있어서 깊이 논할 것이 없었다. 때문에 대부분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쩌다가 주석을 할 경우에는 실제적인 일에서 올바른을 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阮堂先生全集 券1』)¹⁰³⁾

추사 김정희는 훈고학(訓詁學)을 정밀하고 확실한 학문의 방법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스승으로부터 전수 받은 사실적 진리¹⁰⁴⁾와 주석의 문제를 실제적인 일에서 올바른을 구하는 실사구시의 학문으로 보았다. 이때 실사구시의 의미는 삶의 실제적 행위인 사실을 근거로 경전을 해석하는 작업이다. 스승은 바로 정확한 사실의 실상을 전수하는 안내자라는 것이다. 이는 전통 유학의 스승론과 맞닿아 있다고 판단된다.

공자와 맹자는 스승의 역할에 대해 적시(摘示)하지는 않았지만, 대개 도를 전하거나 덕을 깨우쳐주고, 인간을 계발해주는 존재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순자는 스승의 자격과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스승의 자격에는 네 가지가 있다.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거기에 들지 않는다. 첫째, 존엄하여 공경을 받으면 스승이 될 수 있다. 둘째, 5, 60대 어른으로서 믿음이 있으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셋째, 옛날 경전을 암송하여 강의하되 그 뜻을 능멸하거나 제멋대로 본뜻을 해치지 아니하면 스승이 될 수 있다. 넷째 숨겨진 의미를 알아서 그 핵심을 논의할 수 있다면 스승이 될 수 있다. (『荀子』 「致仕」).¹⁰⁵⁾

103) 漢儒于經傳訓詁，皆有師承，備極精實，至于性道仁義等事，因爾時人人皆知，無唐深論故，不多加推明，然偶有注釋，未賞不實事 求是也。

104) 추사는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과의 편지에서도 사승(師承)과 가법(家法)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정주(鄭誅)에 의심나는 곳은 매우 많지만 그것은 사설(師說)이요 가법(家法)이니 지금 사람들의 견문에 합당하지 않은 점이 있을 지라도 ...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후세 사람들이 정을 반박하는 까닭은 자기의 한 가지 반 토막에 지나지 않는 인식과 견해를 가지고 어쩌다 새롭고 기특한 기뻐할만한 곳을 발견하게 되면 의연히 떨치고 일어나 공격하여 있는 힘을 남기지 않곤 하였으나, 돌이켜 생각하면 자기가 공격한 것은 특별히 사설도 아니고 가법도 아닌 것입니다...“(완당선생전집 권4, 「與丁茶山若鏞」). 이는 사설과 가법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사로이 자기의 말로써 사설과 가법이 있는 견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추사가 스승의 역할을 중요시하면서 유학의 축적된 전통을 존중하고 있다는 근거이다. 참고 : 이선경, 「완당 김정희의 실사구시 연구」, 성남 :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2002, p35.

105) 師術有四，而博習不與焉，尊嚴而憚，可以爲師，耆艾而信，可以爲師，誦說而不陵不犯，可以爲師，知微而論，可以爲師.. 참고 : 신창호, 『유학자 추사 실학 교육을 탐구하다』, 서현사, 2005, p78.

유학에서 스승의 자질은 '타인에게서 공경 받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경전을 충실히 이해하고 본지를 강의할 줄 아는 사람, 숨겨진 의미 맥락을 명확히 밝혀주는 사람'으로 요약된다. 중요한 것은 '많은 지식 내용을 일러주는 사람'은 스승의 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스승은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스승은 인간 삶의 기본적인 예의를 전수하는 선각자라는 것이다.

추사 김정희 경우에도 단순한 지식 전달의 문제는 배격했다. 「인재설」에서 보면 과거 시험을 위한 지식을 속성으로 습득할 경우 학문이 트이지 못한다.¹⁰⁶⁾ 추사 김정희가 생각하는 스승, 길의 안내자는 지식을 주목적으로 전수하는 전문가가 아니다. 인간 전체 삶의 문제를 고민한 카운슬러이자, 전인적 교사이다. 천리 길을 가는 데 인도자가 되듯이, 스승이란 늘 삶의 실천을 인도하는 깨달은 존재로서 고상한 품격과 덕성을 몸에 체득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추사 김정희는 1809년에 연경에서 귀국한 뒤로 중국학자들과 끊임없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연을 넓혀 나갔는데, 이러한 교류는 제주도 유배되기 전인 1839년까지 근 30년간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¹⁰⁷⁾. 열악한 환경인 제주 대정현에서의 유배생활 중 추사 김정희의 이성적 지향은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추사 김정희의 詩·書·畵 일치의 학문적 방법론은 정신 과정의 총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수양하는 마음이며 제자들을 가르치는 자세이다. 추사 김정희가 서도에서 강조하는 문자향(文子香)이나 서권기(書卷氣)란 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쌓아올린 정신적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¹⁰⁸⁾. 정신수양을 강조하는 것은 선대로부터 있어 온 것이지만 추사 김정희에 이르러 한 전환점을 마련한다. 앞서서도 말하였지만 추사 김정희는 어떠한 일을 하건 전심하공(專心下工)하는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 성문지학(聖門之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하는 태도가 성문(聖門)의 격치지학(格致之學)과 같다는 것이며 이는 부단한 자기 수련이라는 뜻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심하공 하는 자세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 요구가 충족될 때만이 진정한 사제지간으로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106) 김혜숙, 「추사의 문장에 침윤된 추사의 학문」, 『추사연구』 창간호, 파천:추사연구회, 2004, p66.

107) 유흥준, 『완당편전』 1, 학고재, 2002.

108) 양진건, 秋史 金正喜의 濟州教學活動 研究. 濟州道 研究 제9집 1992, p59 재인용.

서로의 만남은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것은 인격적인 해후이기 때문이다. 추사 김정희의 문하에 많은 중인계층이 모여들고, 제주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이에서 연유한 것이다.

추사 김정희가 제시한 ‘천 리를 가는 일’은 인간 삶의 궤적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학문의 과정이고 삶의 여정이다. 그 길을 올바르게 가기 위해 인간은 스승을 필요로 한다. 스승은 학문의 길, 인생의 길을 먼저 갔던 사람이다. 따라서 그 길에 대한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의 안내를 받지 않고는 도무지 막막하여 발을 내디딜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배움이라고 생각한다.

추사 김정희는 8년 3개월 제주 유배기간 제주인들과 흥학교화의 동화를 통하여 교육내용의 수준 높은 자극과 변화를 예고하게 되는데 왕성한 사제관계가 이를 증명해 준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절해고도인 섬임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인도를 받고자 제주를 방문했던 내도인들과 제주 사제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2. 내도인들과의 사우(師友)·사제(師弟)관계

추사 김정희와 제주도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조선조 후기의 제주도 문풍 진작이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추사 김정희의 안치된 생활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내도를 통해 계속되었던 추사학파의 교학적 열의 그 자체에도 그러한 진작 요인이 내포되어 있었다. 추사 김정희를 찾아 험난한 해로를 뚫고 내도했던 사람으로는 초의(草衣), 허치(許稚), 강위(姜偉), 민규호(閔奎鎬), 그리고 구성업(具聖業), 정원중(鄭元種)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추사 김정희와 사우(師友)·사제(師弟)관계의 사람들이지만 나아가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기간에 잠시 제주목사로 머물렀던 이원조와 추사 김정희의 종유관계(從遊關係) 또한 부기(附記)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내방 제자는 아니지만 스승과의 교분이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로 인해 그 절정에 달했었던 이상적 경우도 아울러 병기(併記)되어야¹⁰⁹⁾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을 옳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09) 양진건, 앞의 책, 1989, p246.

1) 초의의순(草衣意恂)(1786~1866)

금석학과 고증학의 대가였던 추사 김정희는 스님들과의 많은 교류를 해왔는데, 훗날 추사 예술이 불가(佛家)의 선(禪)사상으로 이해되고 설명될 정도로 그는 불교에 심취해 있었다.¹¹⁰⁾ 이러한 추사 김정희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초의 의순과의 교우로 발전된다. 1815년 30세 때 다산의 아들인 유산 정학연의 소개로 초의를 만난 뒤 친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속전에 의하면 정학연이 강진에 유배된 아버지를 뵈러 갔다가 거기에 찾아온 초의를 만나 사귀게 되었고, 정학연은 초의에게 서울로 올라오면 많은 사대부 벗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초의가 두릉의 정학연을 찾아와 추사 김정희와 초의가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¹¹¹⁾. 이러한 추사 김정희와 초의의 첫 만남은 그들이 죽기까지 42년간 지속된다. 『완당선생전집』에는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가 35통인데, 초의에게 보낸 편지가 38통으로 더 많이 실려 있다. 이것은 그들의 교우의 친밀함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초의는 좋은 차를 추사에게 보내주었고 추사 김정희는 이에 답하는 글씨를 써서 보내 주곤 했다. <茗禪>이라는 작품은 두 사람의 그런 교우의 분위기를 잘 보여 준다.¹¹²⁾ 이런 우정으로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 8년 3개월 동안 다섯 차례나 제주를 내왕했을 정도로 그 교분이 두터웠다.

1843년 봄 아내를 잃은 추사 김정희에게 초의스님이 추사 김정희의 喪妻를 위로하기 위해 제주도로 찾아왔다. 초의 스님이 추사 김정희를 찾아왔다는 사실은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초의가 쓴 『阮堂金公際文』에 나와 있다. 초의는 이 제문에서 제주에서 반년 동안 추사 김정희와 함께 있었음을 적어놓았다.

그러나 『완당선생전집』에는 추사 김정희가 초의와 함께 지낸 흔적이 글로 남아 있는 것은 없다. 다만 그에게 지어준 시가 몇 편 있어 그것이 꼭 제주시절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한 지붕에서 먹고 자고 하던 초의에게 준 것만은 틀림없다. 그 중 「초의에게 주다」라는 시는 그가 그저 곁에만 있어도 좋음을 노래한 것이다.

110) 김봉호, 「초의선사와 완당 김정희」, 우리출판사, 1992, p217.

111) 김영진, 「유산(西山)정학연(丁學淵)의 생애와 저작에 대한 일고(一考)」, 다산학술재단 학술논문, p27.

112) 김정희, 『국역완당전집』 2. 술, 1988, p191.

贈草衣¹¹³⁾ 초의에게 주다

任爾傍參笑百場 너의 방참 내맡겨라 백 마당 웃어대니
了無礙處即吾鄉 걸림 없는 그곳이 내 고향일레
依人山島空 寂 사람 곁한 산새는 지저귀다 고요하고
款客溪雲自煖涼 손님 맞는 시냇구름 따듯타 고요하고
最是一床無別夢 가장 이 한 침상에 별다른 꿈 없는데
詎能同味有他腸 어찌타 같은 맛이 딴 창자 있을 손가
襟花鋪上休藤葛 꽃을 모은 포자 위에 갈등일랑 하지 마라
恐把摩訶說短長 마하 들어 장단을 말할까봐 두렵노라

추사 김정희와의 교류는 동갑나기로서 서로가 서로를 드높여 주는 남다른 사이였다. 초의는 제주도의 추사 김정희에게 제자 소치를 통해 손수 법제한 차를 보내고 추사 김정희는 초의에게 글을 써 보내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추사 김정희는 말차를 끓이는 데도 일가견이 있었으며 해마다 초의로부터 차를 얻어 마셨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초의는 직접 찾아가 같이 지내며 차나무도 심고 참선도 하였다¹¹⁴⁾. 두 사람의 교류에 고리 역할을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차였다. 언젠가 초의가 만든 차를 맛본 추사 김정희는 초의에게 자주 편지를 써서 차를 보내달라고 했다. 그 문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 차를 빨리 보내달라고 조르는 내용들이었다고 한다. 초의가 차를 제때 보내주지 않으면 그는 다그치듯 서신을 다시 보냈으며, 으르고 울러서 고대하던 차가 도착하면 샘물을 직접 받아 정성껏 달여 차를 음미하였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차로 인해 학문과 예술의 경지가 더욱 승화되었다. 이런 추사 김정희와 초의의 차 회동은 제주도의 차 문화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¹¹⁵⁾.

芋社燃燈 우사(초의 별호임)가 연등을 밝히다.

艸衣老衲墨參禪 초의 노스님이 글씨로 참선하고 있으니
燈影心心墨影圓 등잔 그림자는 스스로 재미있는 듯, 붓끝이 멋지게 돌아간다
不剪燈花留一轉 등 불꽃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니
天然擎出火中蓮 불 가운데 연꽃이 살살 밀고 나온다.

113) 김정희, 『국역완당전집3』, 삼성인쇄, 1986, p133.

114) 이종찬, 『초의시교』, 동국역경원, 2010, p31.

115) 손연숙, 『차 문화 기행』, 「현장에서 쓴 우리 차의 역사와 문화」, 이룬아침, 2008, 문성당, p 194.

추사 김정희의 외로운 유배생활은 초의 스님이 곁에 있어 위의 시처럼 큰 위안이 되었다.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이때 초의는 산방굴사에 머물다가 육지로 떠난 초의가 말을 잘못 타 살이 벗겨졌다는 소식을 들은 추사 김정희는 위로 겸 처방을 내려준 편지에서 그들의 깊은 교우를 알 수¹¹⁶⁾ 있다.

초의가 육지로 향하던 1843년 6월 새 제주목사로 이용현이 부임하였다¹¹⁷⁾. 초의는 육지로 올라가기 위해 추사 김정희가 머물던 대정을 떠나 제주에 당도했을 때 이용현은 초의와 望京樓에서 한 차례 얘기를 나누고 그 자리에서 시를 한 수 부탁했다. 초의는 추사 김정희가 어서 빨리 풀려나게 되기를 바라는 뜻을 넣어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方丈蓬萊恣遠遊 방장산과 봉래산을 마음껏 노닐다가
 又飛錫杖到瀛洲 주장자를 옮겨서 제주 섬으로 왔노라
 神人去國雲掛穴 신선은 떠나가고 구름은 굴에 걸려 있고
 仙侶昇天月在樓 신선들도 하늘로 올라 누엔 달만 걸렸네!
 鄉貢皆稱南渡馬 조공으로는 제주 말을 모두 칭찬하는데
 聖恩長望北來舟 성은을 간곡히 기다리며 북에서 올 배를 본다.

초의는 철종 7년(1856) 10월에 42년간 깊은 교유를 맺어오던 추사 김정희가 과천 청계산 아래에서 유명을 달리하자, 그의 영전에 「완당김공제문(阮堂金公際文)」을 지어올리고 일지암에서 적정(寂靜)하게 지냈다¹¹⁸⁾.

초의는 추사 김정희를 두고 “폭우나 우레처럼 당당했고 때로는 온화했으며 슬픈 소식을 들으면 옷깃을 적시는 인품”이라고 했다¹¹⁹⁾. 초의는 조선 말기 사회의 고뇌 속에서 승려로서는 드물게 자기 시대 분위기의 최첨단을 호흡하며,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의 참뜻을 이해한 승려였다. 특히 당대의 명필이자 금석문의 대가인 추사 김정희와의 교유는 초의로 하여금 실학하는 불교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16) 유흥준, 『김정희』, 학고재, 2006, p214.

117) 유흥준, " 앞의 책" p215.

118) 이종찬, 『초의시고』, 동국역경원, 2010, p32.

119) 유흥준, 『완당평전』 1. 학고재, 2002, p152.

2) 소치 허유(小癡 許維)(1809~1892)

추사 김정희의 제자 중에는 화가가 매우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소치 허유가 으뜸이다. 소치는 허균의 후손 중에 전라남도 진도에 정착한 허대(許垚)의 자손으로 어려서 윤선도 고택에서 윤두서의 작품을 흉내 내면서 전통 화풍을 익혔다. 소치는 본래 초의선사에게 학문과 인격을 수양하고, 공제 윤두서의 화첩을 통해 그림에 대한 다양한 체법과 화법을 터득한다. 1839년에 초의가 추사 김정희에게 소치의 그림을 보여준 것이 인연을 맺는 계기¹²⁰⁾가 되었다

초의선사 천거로 추사 김정희 문하에 입문한 소치는 본격적으로 서화를 배워 남종화¹²¹⁾의 대가가 되어, 남종화풍을 토착화시켰다. 비록 낙도에서 태어났으나 천부적인 재질과 강한 의지로 시(詩), 서(書), 화(畵)에 능해 40세 되던 1847년에는 헌종 대왕을 알현하고 어연에 먹을 찍어 그림을 그리며 왕실 소장의 고서화를 평하는 영광을 누렸다. 민영익은 서화에 뛰어난 소치에게 '묵신(墨神)'이라 했으며, 정문조는 시를 더하여 삼절(三節)이라 하였고, 스승인 추사 김정희는 중국 원나라 4대 화가의 한 사람인 황공망을 '대치(大痴)'라 했는데 그와 견줄 만 하다고 해서 소치(小痴)라는 아호를 내려주었다¹²²⁾. 압록강 동쪽에서는 소치를 따를 자가 없다. "소치 그림이 내 그림보다 낫다"고 극찬한 대목에서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겠다¹²³⁾.

소치는 추사 김정희를 스승으로 모시고 추사 김정희가 유배되었던 제주도까지 3차례나 찾아와서 그림과 글을 배웠는데 1841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스승의 수발을 들었다. 이에 대해 소치는 "나는 추사선생의 적소에 계속 함께 있으면서 그림그리기, 시 읊기, 글씨 연습 등의 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¹²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추사 김정희는 제자에게 그림과 글씨 그리고 시를 가르쳤음을 알

120) 김상엽, 『소치 허련』, 돌베개, 2008, p112.

121) 남종화는 대체로 인격이 고매하고 학문이 깊은 사대부(士大夫)가 여기(餘技)로 수묵과 담채(淡彩)를 사용하여 그린 간일(簡逸)하고 온화한 그림이다. 소우주인 인간과 대우주의 자연의 합일이다. 당나라 초기 남북2종설(南北二宗說)은 명나라 때 동기창이 《화지(畫旨)》 《화안(畫眼)》 등 그의 문집 속에서 당대(唐代) 선종(禪宗)에 남·북종이 있음을 주목하고, 회화에서도 남·북종의 구분을 한 데서 비롯된다. 남종화는 오도자, 왕유->이성, 범관, 동원, 거연, 미씨(북송)->원사대가(원)에 의해 계승되고 북종화는 이사훈(당)->곽희(북송)->마원, 하규(남송)에 의해서 계승된다. 참고 : 최순자(1985). <추사김정희의 묵란화에 관한 연구>, 성산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7.

122) 광주 매일신문(제5345호), 「남종화의 터전 진도 윤립산방」, 2011,01,24. p5.

123) 최순택, 《秋史의 書畵世界》, 학문사, 1996, p.72-86.

124) 양진진, 위의 책, p40, 재인용.

수 있다. 소치의 문인 화풍은 아들인 허형(許瑩), 손자 허건(許楨), 조카 허백련(許百鍊) 등으로 승계되어 이른바 남도 문인화를 창출시켰다. 이를테면 훗날 제주사람 김광추(金光秋) 등이 허유의 손자인 허건(許楨)과 교분이 두터웠던 점 등도 허유의 제주내왕에서 비롯된 인연의 한 끝이라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¹²⁵⁾

3) 이상적(1804~1865)

조선후기 위항시인이며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혜길(惠吉), 호는 우선(藕船). 그는 대대로 내려오는 역관 집안에서 태어나 그 자신도 역관이 되었는데 역관을 지낸 집안 출신이다. 벼슬은 온양군수를 거쳐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역관의 신분으로 청나라에 모두 열두 차례나 다녀온 중국통이다¹²⁶⁾. 그는 용모가 수려하고 문체도 아름다워 연경에서 거공명유(巨公名儒)들과 친교를 맺고 70여명의 중국 문인들과 교류하였으며, 유희애의 『해동금석원』에 서문을 써줄 정도로 학식과 시문에 능했다.¹²⁷⁾ 그의 시는 섬세하고 화려하여 사대부들에게 널리 읽혔으며, 헌종도 즐겨 읽어 문집을 <은송당집 恩誦堂集> 이라고 했다¹²⁸⁾.

이상적은 추사 김정희가 유배를 떠나기 전 이미 5차에 걸친 여행을 했었다. 그는 여행할 때마다 추사를 위해 청나라 학계의 최신 정보를 전해 주었고, 진귀한 서적들을 구해다 주었다¹²⁹⁾. 평소에 교분이 있던 사람들도 바다 밖 멀리 유배되면 멀어지는데 그는 유배 가기 전이나 유배 간 되나 언제나 똑같이 자신을 대하고 있는 이상적은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동안에 맺은 사제(師弟)와의 교분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관계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상적은 추사의 제주유배 동안 적소(謫所)까지 방문은 하지 않았지만 1843년 계복(桂復)의 『晚學集』 8卷과 운경(惲敬)의 『大運山房集』 8卷을 멀리 북경에서 구해 보냈으며, 이듬해는 하장영(賀長嶺)의 『黃淸經世文編』 12卷을 부치는 등 극진히 제주 유배지에 있는 추사 김정희의 무료함을 위로하였다. 『黃淸經世文編』은 1827년에 간본(刊本)으로 자서(自敘)가 있다. 추사 김정희가 평소에 보고

125) 양진진, 禾北의 敎學文化, 「耽羅文化」 第8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9, p27. 재인용.

126) 유흥준, 『김정희』, 학교재, 2006, p168.

127) 정후수, 「이상적 시문학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88, p38.

128)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17a3593a>.

129) 박철상, 「세한도」, 문학동네, 2010, p95.

싶었던 책이었으니 그의 감격은 매우 컸던 것이다¹³⁰).

이상적의 행동을 보면서 추사 김정희는 문득 『논어』의 구절을 떠올렸다. 「자한」편의 ‘세한연후지송백지후조(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라는 구절이었다¹³¹. 공자가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나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꼈듯이, 사람도 어려운 지경을 만나야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는 법이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추사 김정희는 우선이야말로 공자가 인정했던 송백(松柏)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우선에게 무언가 보답을 하고 싶었지만 바다 멀리 유배객 신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것뿐이었다. 붓을 든 추사 김정희는 자신의 처지와 우선의 절개를 비유한 <歲寒圖>를 그려 준다¹³²).

세한도는 추사 김정희의 마음속의 이미지를 그린 것으로 그림에 서려 있는 격조와 문기(文氣)가 생명이다. 추사는 여기서 갈필(渴筆)과 건묵(乾墨)의 능숙한 구사와 문인화의 최고봉을 보여 주었던 원나라 황공망의 예찬(倪瓚)¹³³류의 문인화를 따르고 있다. …<세한도>의 구도와 묘사력 따위를 따지는 화법만의 아니라 필법과 묵법의 서법까지 보아야 맛과 제 멋과 가치를 맛볼 수 있는 그림이다¹³⁴.

세한도는 제자가 초인적인 노력으로 스승에게 여러 가지 서적을 멀리 중국에서 구해서 제주도에 전해 주었으며 스승도 그러한 신의에 감사의 뜻을 여실히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에 이상적은 何其推 把之送分 而感概之切也(어이 그다지도 분수에 넘치게 추켜올리셨습니까? 감개가 진실로 절실합니다)¹³⁵.라고 답하였는데 참으로 독실한 교분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상적은 역관(譯官)으로 장차 조선말기의 새 세력으로 등장하는 역관 계통의 중인(中人) 계층들이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모이게 되고, 이들이 거의 개화파의 선구자가 되었던 점은 유의해 볼 부분이다.

130) 양진건, “앞의 책” (1989), p248 재인용.

131) 박철상, 「세한도」 문학동네, 2010, p174.

132) 유홍준, 『김정희』, 학고재, 2006, p227.

133) 중국 원말·명초의 산수화가. 오진(吳鎮)·황공망(黃公望)·왕몽(王蒙) 등과 원말 4대가의 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간결한 필법 속에 높은 풍운(風韻)을 느끼게 하며 구도와 묘법에 독특한 간원(簡遠)함을 가미하였다. 형태에 구애되지 않는 공활(空闊)하고 소조(蕭條)한 정취는 후세의 문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출처] 예찬 [倪瓚] | 네이버 백과사전<http://100.naver.com>.

134) 유홍준, 완당평전 1권 학고재, 2002, p398.

135) 박철상, 「세한도, 문학동네, 2010, p183.

4) 강위(姜瑋)(1820~1884)

강위는 병약한 관계로 11세에 서당에 갔으며, 14세에 향시에 응시하였다. 이후 서울에 올라와 영의정을 지낸 정원용(鄭元容)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그의 손자인 정건조(鄭健朝)와 함께 공부하였으나, 24세 때 신분상의 제약으로 문신이 될 수 없음을 알고는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과 문학에 전념하게 되었다¹³⁶⁾. 당시 이단으로 몰려 은거하고 있던 민노행(閔魯行)의 문하에서 4년간 수학하였고, 스승이 죽게되자 강위에게 “너는 제주도에 유배가 있는 완당을 찾아가 배움을 이으라”고 유언하여 강위는 제주도에 유배가 있던 추사 김정희를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어 4년간 제주에서 지냈다¹³⁷⁾. 강위는 추사 김정희에게 30세 이후까지 경의(經意)를 묻고 스승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뒤이어 그가 북청으로 유배되자 그곳에도 따라가 계속 가르침을 받는다¹³⁸⁾. 그 결과 추사 김정희의 고족(高足)으로 꼽히는 같은 추사 문하의 이상적을 계승한다. 그러나 강위가 제주도를 찾아와 추사에게 배움을 청했을 때 추사 김정희의 태도는 “배우고 연구해서 무엇하려는가?” 하면서 매우 비감했던 것 같다. 「阮堂先生羅州金公韓正喜墓」에 이때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고환(古歡) 강위가 기원(杞園) 민유축(閔遺囑)과 바다를 건너 선생을 뵈고 배우기를 청하였다. 선생이 탄식하며 “자네들은 나를 보지 못하였는가! 경을 공부한 결과가 이와 같다. 이를 배우고 연구해서 무엇하려 하는가?”라 하였다. 아! 그 도는 천지의 이치, 울력의 수, 글자의 성균에서 도가와 불가의 전적, 금석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미하였으며, 서법 또한 고금의 변화를 다하였다.」(阮堂先生苗)¹³⁹⁾

이렇게 시작된 제주도에서 추사 김정희와 강위의 관계는 도타운 애정의 연속이었음을 추사 김정희가 막내 동생 상희에게 보낸 서한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136) 유홍준, 『김정희』, 학고재, 2006, p287.

137) 이광린, 『동방학지』, 「강위의 인물과 사상」, 1976, p17.

138) 주승택, 『한국학보』 「추금 강위의 사상과 문학관」, 1986, p43.

139) 「阮堂先生慶州金公謂正喜墓」, “古歡姜瑋 以閔杞園遺囑 過海謁先生 而請學焉 先生惘然曰 ”子不見我乎! 治經之效如此 學此究何用“ 噫 其自道也 于天地之文 律曆之數字之聲均 以至道擇典藏金石譜錄 借決摘竊微 書法又極古今之變矣”. 참고 : 양진건, “앞의 책”, 2005, p46.

는 스승과 제자가 한 집에 살며 풍우명암(風雨明暗)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강의하고 질문하였던 모범이다. 강위는 제주도에서 수발을 드는 동안 박학다식한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며 또 스승의 장서를 열람함으로써 그의 공부는 깊고 넓어진다¹⁴⁰). 스승을 만나기란 쉽지 않고 책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 그러기에 학문에 뜻을 두는 사람은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스승을 찾아 배움을 청하게 된다. 특히 강위는 스승을 통해 개화사상의 촉매 구실을 하였던 위원(魏源)의 「海國圖志」 같은 선진사상을 접하게 되면서 개화의지를 가다듬게 되며 초기 개화파로서의 진로를 가늠케 된다.

강생(姜生)은 한갓 인물만 뛰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인품도 뛰어나게 아름다워서 형편없는 풍속을 가진 시골에서는 있기 힘든 사람일세, 적막한 가운데서라도 조금 위안을 얻을 수 있으니 다행이네 저도 역시 아직 갈 뜻이 없고 계속 이곳에서 머물러서 겨울을 난다고 하니 먹여 살릴 방도가 심히 걱정일 세. 두 그릇 밥이야 어렵지 않겠지만 가장웃해 입는 한 가지 일이 자못 마음 쓰일 뿐이라네. (阮堂先生全集 卷二)¹⁴¹

1856년 추사 김정희가 죽었을 적에 강위는 제문을 지어 스승의 한 점 부끄럽 없는 삶을 칭송함으로써 자기에게 베풀어 주었던 스승의 도타운 정에 값을 하는데 아름다운 사제관계의 한 장면 이라 할 수 있다.

5) 민규호(1836~1878)

민규호는 추사 김정희의 내종질로 인물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총명호학(好學)하여 어려서부터 추사 김정희의 사랑을 받았으며 후일 추사 김정희의 학통을 이어 「阮堂先生全集」 5권5책을 편집하고 스승의 소전을 쓰게 되는데 추사 김정희의 제 주유배 동안에 2차례나 제주 내왕을 한다. 황현(黃玹)의 『梅泉野錄』에 보면 “근세의 권문으로는 황산을 꼽는데, 황산은 김유근의 호 이다. 필가로는 추사를 꼽

140) 오성찬, 「추사 김정희」, 큰산, 2002, p127.

141) 『阮堂先生全集』, 卷二, 與舍季, 其一六, “姜生非從所在草人品絕桂未俗之希有者也辛於寂寞至中得以小慰尹迹故無去意第此留之而過冬接濟之道甚悶兩孟飯不難而最是絲身一條路頗關心耳”. 참고 : 양진건, 앞의 책 p46.

는데, 민규호는 이 두 분을 사모하여 자호를 황사(黃史)라고 하였으니, 권력은 황산처럼 되고 글씨는 추사 김정희처럼 되고자 한 뜻이었다”¹⁴²⁾고 기록되어 있어 그의 추사 김정희에 대한 존경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3. 제주인과의 사제관계

대개의 유배인들 경우 유배로 인한 자기 상실의 고통 때문에 외로움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는 일이 많은데 추사 김정희는 일단 유배지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적응의 생활태도를 보여 준다. 중형의 유배자의 경우 유배지의 목사(牧使)나 향사(鄕史)의 배려로 유폐(幽閉)되는 일을 겨우 모면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서 주민들과의 인간적인 접촉과 교류도 가능했었는데 추사 김정희는 이런 기회를 빌어 유배지 주민들과 흥학교화의 동화를 통하여 죄인이라기보다는 타향(他鄕)의 견문을 넓히면서 잠심도학(潛心道學) 하며 인격을 수양하고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삶의 한 켠 틈으로 교학활동의 많은 성과를 남기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결과가 왕성한 사제관계의 계보형성이었다¹⁴³⁾.

추사 김정희는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논쟁¹⁴⁴⁾을 통해 바깥세상과 관계를 맺었는가 하면 교학활동을 통해서도 제주도 사람들과 사제관계를 맺었다.

애초 사제관계란 사제동행이라는 ‘서로 만남’ 속에서 마음으로 허락하여 종평생(從平生) 사지(事之)·사숙(私淑)하는 실질적인 관계인데 유배인의 제주생활은 극히 제한된 공간적 여유밖에는 없었기에 학맥·인맥 형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임은 쉽게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사 김정희는 현지주민들과 동화된 풍성한 여러 관계들을 보여 주었으며 그는 제주도에서도 문화의 계승과 계발이 이루어지길 열망했고 제주도 사람들의 열의를 반가워하고 격려했다.

142) 한정주, 한국사 천자문 5. 포럼, 2007, P1334.

143) 양진건, 「秋史 金正喜의 師弟關係 淵源考」, 申榕俊 博士 華甲 紀念 論叢, 1989, p246, 재인용

144) 유흥준, 「추사 김정희」, 『유배지 제주섬에서 피어난 꽃』, 학술논문 역사비평45, 한국역사연구회, p29.

제주도의 추사 김정희 사제관계로는 이한우, 강사공, 박계첨, 허숙, 김우민, 이시형, 김여추, 김구오, 강도순, 강기석, 김좌겸, 홍석호, 오진사 등이 있다¹⁴⁵⁾.

추사에 의하면 공동체의 융성을 위해서는 위정자의 윤리의식과 정치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은 더욱 필요하다. 그것이 곧 교육의식이다. 그의 교육적 관심이 아주하잘것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쳐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그는 많은 제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추사 김정희의 교학활동은 “단 하루의 만남이라도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관계로 이어진다(一日爲師終身不忘)”는 것을 보여준 모범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추사의 제주도 제자들은 조선후기 제주도 향당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1) 강도순(姜道淳)

추사 김정희의 두 번째 적거지 주인인 강도순(1816~미상)은 추사 김정희의 영향으로 글씨와 그림에 재능을 보였다. 그의 집은 4·3사건 때 불타버렸지만 1984년 고증에 따라 다시 지어져, 추사 김정희 유배지로 지정되었다¹⁴⁶⁾.

강도순은 강대유의 일곱 아들 가운데 둘째다. 강도순의 세 아들 가운데 큰 아들 강주영은 큰집으로 입양되지만 거처는 친아버지 강도순의 집을 이어받는다. 강주영의 네 아들 중 강도순의 집에는 큰아들 강기룡이 계속 살게 된다. 강기룡은 외아들 강문석을 낳는데 지금도 강문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가 ‘귀양다리가 살았던 큰집’이라고 부르던 강도순의 집에서 살았음을 증언하고 있다¹⁴⁷⁾.

특히 강도순의 집은 산물이며 동백나무, 배나무, 앵두나무가 많았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안거리, 밖거리 외에 마루가 꽤 넓은 규모의 손칭거리(손님맞이 방)가 있는 집이었다고 했다¹⁴⁸⁾. 강도순은 상당한 넓은 규모의 밭도 소유했을 만큼 재력이 있었으며 성격이 매우 유순한 어른으로 동네에서 신망이 높았다고 한다. 이로 보건대 추사 김정희의 적거지로 마을 내의 비교적 유력한 집안이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⁴⁹⁾ 강도순의 가계를 통한 추사 김정희의 영향은 독특한 구조를

145) 양진건, “앞의 책” p251, 재인용

146) 제주일보, 「교학활동으로 제주인들과 폭넓은 인맥 추사 제자들」, 2011.03.15.

147) 양진건, 제주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푸른역사. 2011, p104

148) 양진건, “앞의 책”, 2011. p101. 재인용

통해 후대에 승계되었다. 원악의 유배인들이 갖게 되는 성향은 대체로 정치적 구조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러한 성향은 유배지 현 주민들에게도 유포되기 마련이며 비록 그 성향 표출이 노골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만남의 저변 분위기는 유배적 갈등과 무관하기 어렵다. 따라서 체제 비판적(體制批判的)¹⁵⁰⁾ 유배인들이 성향은 관계한 주민들의 가계 또는 제반 환경을 통해 후대로 계승된다. 이를테면 제주도 대정 지역에서 엿보게 되는 반골적 성향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¹⁵¹⁾ 즉 이것은 조선조 최악의 유배지였던 대정이 유배제도로부터 가능하였던 역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추사 김정희와 관계하였던 강도순의 후손 가운데 강우백은 1901년의 소위 이재수란 또는 성교란(聖敎亂)으로 불리는 농민항쟁의 장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¹⁵²⁾. 또한 강문석은 일제하에서 한남의숙¹⁵³⁾을 열고 인재육성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 교육 사업에 힘썼으며 나아가 1948년 4.3사건 당시 좌익계의 거물로서 김달삼이라는 이름으로 활약했던 이생진은 강문석의 사위였다¹⁵⁴⁾. 이승진 역시 중종대 유배인 이세번의 후손이며 또한 이세번의 선대인 이재수는 1901년 이재수란의 바로 그 장본인인데 이렇듯 체제원망의 승계구조는 복잡 미묘하다.

2) 이시형(李時亨)

추사 김정희의 인맥은 권위보다는 사람에 대한 예의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신분에 상관없이 그가 누구든 능력만 엿보이면 관심을 두었다는 말이다. 추사 김정희의 제자들 중에 중인 또는 그 이하의 계급들이 많다는 것은 파격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유배된 다음해(1841년)에 제주도 제자 이시형을 한양으로 보내며 양자 상무에게 특별히 부탁하는¹⁵⁵⁾ 편지에 그런 면모가 잘 드러난다.

149) 제주일보, 「교학활동으로 제주인들 과 폭넓은 인맥 추사 제자들」, 2011.03.15.

150) 이에 대해서 이론(異論)이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체제 비판적이란 군왕이라는 체제의 상징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상징을 보위하는 정치적 구조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 (양진건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 교학사상연구」, 1992, 「제주도연구」 9. p 193.

151) 제주도의 반골적 성향은 제주도 내외에서 가해졌던 여러 수탈과 탄압, 그리고 박해와 혼란에서 연유한 저항정신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된다. 때로 분리주의적 유산이나 혹은 야당성이라는 맥락에서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제주도 민란의 대부분은 대정을 중심으로 일어났다(양진건(1990) 「濟州流配人의 關化敎學活動研究」, 「민족문화연구」, p274)

152) 고병석, 「제주유배문화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일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4, p17.

153) 동아일보(1928.12.28)에 의하면 1928년 일제의 탄압에 의해 폐교되었다.

154) 양진건. “앞의 책” 2011, p104.

“이 고을에 사는 이시형은 나이 젊고 재주가 뛰어나서 이 학문을 하려고 결심하였는데, 그 뜻이 꼭 견고하여 막을 수가 없으므로 이에 그를 올려 보내노니, 시험 삼아 함께 연마해 보아라. 비록 그의 견문은 넓지 못하나 거기에 더 연마만 해 놓으면 충분히 이곳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배편을 따라서 가자면 늦어질 듯하다.” (阮堂先生全集 卷二)

추사 김정희는 이렇게 제자들을 항상 챙겨주는 자상한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그가 지닌 큰 인간적 강점이었다.

이시형은 추사 김정희의 유배생활 8년 3개월 동안 온갖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 맡아 돌봐 주었다. 그러니 추사 김정희는 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 밖엔 없다. 편지에 “마침 이 군이 간다 하기에 잠깐 근황을 적어 올리는 바이며 이는 바로 내가 바다에 들어온 처음에 만난 사람인데 햇수로 9년 동안 온갖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모두 맡아 돌봐주고 있으니 궁도의 한 가지 좋은 연이외다”¹⁵⁶⁾라고 했다.

3) 이한우(李漢雨)

이한우는 조선후기 제주도 조천 출신으로 문인으로 호는 매계(梅溪) 초명은 이한진(李漢震)이다. 그는 추사 김정희가 만난 가장 격조 높은 종유자(從遊者)였다¹⁵⁷⁾.

그는 아버지가 마을에서 서당을 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 향시에 합격하여 여러 차례 전시에 응시하였으나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시골 선비가 급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결국 과거를 포기하고 귀향하였다.

고향에서 독서에 몰입하여 천문·산경·지리·병서 등에 통달하였으며 특히 시에 능하였다. 1853년(철종 4) 제주목사 목인배(睦仁培)는 이한우의 글을 보고 ‘남국산두(南國山斗: 남국의 태산이요 북두칠성)’라고 극찬하였다. 이한우는 강기석, 오승현 등 유림들과도 종유하며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던 당대 제주의 사표(師表)였다. 안달삼(安達三)·김희정(金羲正)·이계징(李啓徵)·고영혼(高永昕) 등이 그의 제자

155) 유홍준, 『김정희』, 학교재, 2006, p286.

156) 유홍준, 『완당평전』, 학교재, 2002, p217.

157) 김찬흡, 『제주사 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들이었는데 당시 도학으로는 안달삼을 시학(詩學)으로는 김희정을 남주(南洲) 제 일인자(第一人者)로 꼽았으니 이것만 보아도 이한우의 능력과 비중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안달삼과 이계징은 후일 장성의 노사 기정진의 문하생¹⁵⁸⁾으로 활약했고 김희정은 면암 최익현이 제주도에 유배 왔을때 그의 문인이 되었다¹⁵⁹⁾. 이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추사 김정희와의 사제관계로 학문적 기초가 이한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볼 때 이한우는 당대 제주 교학질서의 중추적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한우의 「제추사선생수성초당(題秋史先生壽星草堂)」¹⁶⁰⁾이라는 한시(漢詩)에서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추사 김정희 인격(秋史人格)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성공적이었으므로 그를 숭앙하게 되었으며, 추사 김정희 또한 자신의 유배 거실인 수성초당을 개방하였던 것이다.

제주에서 경관이 뛰어난 10곳을 선정하여 ‘영주십경(瀛洲十景)’이라 하고 시로 읊었다. 이한우는 1862년(철종 13) 진주에서 대규모 민란이 일어나 조정에서 삼정책문(三政策問)을 전국에 내리자 이한우도 삼정책(三政策)을 올렸다¹⁶¹⁾.

이한우는 삼정책에서 “세금 거두는 것이 한도가 없어 백성은 편안히 살지 못하고 마을이 피폐해져 비게 되었고 밭에 소나무가 서 있어도 세금을 걷고, 수확이 전혀 없어도 걷는데, 한 줌이나 한 묶음이나 하는 것은 오로지 아전의 붓끝에 맡겨지며, 결수를 숨기거나 더하여 걷는 세금의 반이 관리들 주머니로 들어가며, 정리로 주는 뇌물은 해마다 들어 마침내 고질이 되어버렸다”라고 하여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한우선생 유적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초등학교정문 입구에 세워졌다.

4) 박혜백

지·필·묵에 까다롭기 그지없던 추사 김정희에게 귀한 제자가 생겼다. 그는 붓 만드는 필장(筆匠)인 박혜백이다. 추사 김정희는 그에게 글씨 쓰기, 도장 새기

158) 윤영선 「朝鮮遺賢淵原圖」 참조: 양진건(1992) 「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 教學思想 研究」, 제주도연구 9, p194 재인용.

159) 양진건, “앞의 책” 2011, p101.

160) 吳文福, 「瀛州風雅」, 1989, p227.

161) 김찬흡, 『제추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기, 붓 만들기를 성심으로 지도하였다. 그 덕에 그는 제주필원에 꼽혔다¹⁶²). 추사 김정희는 박혜백의 붓 만드는 솜씨를 믿으면서도 건문이 좁음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혜백이 제법 붓을 고르는데 능하여 청서필(靑鼠筆)을 낭호필(狼豪筆)보다 더 치면서 스스로 그 묘리를 얻었다네. …그러나 중국 호남에서 생산되는 여러 품종의 붓을 두루 보아 그의 안목을 넓히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네.(全集 券二. 막내아우 상희에게, 제7신)

박혜백은 제주도 사람으로. 호는 계첨(癸詹)이다¹⁶³). ‘완당선생전집’ 제8권의 ‘잡지(雜識)’에 실린 “박군 혜백이 글씨를 나에게 물으며 서의 원류를 터득하는 방법을 청하므로 나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¹⁶⁴). (朴君惠百問書於余叩其得書源流)”라는 글에서 보이듯이 글씨 쓰기에 대한 지도가 매우 세밀하다. 특히 이 글에서 추사 김정희는 “왕희지는 구양순을 통하여 들어간다.”는 원칙을 설파한다¹⁶⁵).

구·저 여러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위로 종(鐘)·왕에 접속하려드니 이는 문 앞 길도 거치지 아니하고 곧장 방 아랫목을 밟겠다는 격이라 그것이 되겠는가. 조자고는 말하기를 “진을 배우려면서 당 나라 사람을 거치지 않는 것은 너무도 요량 없는 것을 내보일 뿐이다.”¹⁶⁶)

박혜백은 추사의 도장을 망라한 『완당인보(阮堂印譜)』 1책을 꾸며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 전해져, 추사와 박혜백이 친밀한 관계를 다시한번 엿보게 된다. 여기에 실린 도인은 무려 180개가 된다¹⁶⁷). 전각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귀중한 책이다.

이런 추사의 인장을 총망라한 책을 제주도 제자 박혜백이 만들 정도였으니 그에 대한 추사의 신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완당인보’와 같은 귀한 책이 제

162) 양진건. “앞의 책” 2011, p107.

163) 유흥준, 『김정희』, 학고재, 2006, p258.

164) 『國譯阮堂先生全集』, 卷 八, 雜識, ‘朴君惠百問書於余 叩其得書源流’

165) 제주일보 3면, 추사, 제주서 사람에 대한 예의로 인간관계 형성, 2011.03.29.

166) 양진건, “앞의 책”, 2011, p107.

167) 유흥준, 『김정희』, 학고재, 2006, p 261.

주도에서, 그것도 제주도 사람이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별로 아는 사람도 드물고 이에 대한 자부심도 별로 없다.

전각(篆刻)¹⁶⁸⁾의 분야에서도 추사각풍(秋史刻風)이라는 독특한 분야를 수립하여 자신의 작품에 낙관(落款)으로 사용했던 추사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각(刻)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며. 그의 노력은 박혜백, 김구오 등에게 승계되었고 이어 김구오의 아들 우제가 정통을 이었고 우제의 아들 김의남이 가법(家法)을 따랐다¹⁶⁹⁾. 김의남의 전각은 홍종시(洪鍾時)로 이어졌으며 이것을 박판사(朴判事)(성명미상)가 승계하였다. 홍종시는 서법(書法)과 전각(篆刻)등에 있어 「추사연원서법입신(秋史淵源書法入神)」이라는 세평(世評)이 시사하듯 추사를 비교적 제대로 계승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완당선생서법총론(阮堂先生書法總論)』이라는 저서도 남겼다¹⁷⁰⁾.

추사는 곳곳에서 박혜백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그에 대해 여러 편의 시를 남긴 것만으로 보아도 그 애정의 각별함을 알 수 있다.

추사 김정희의 동생인 김명희가 제주도에 있는 형에게 쓴 글 가운데 조카가 제주도에 있는 아버지 추사 김정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시 몇 수를 김구오와 박혜백에게 부치고 겸하여 조카도 노력하도록 부탁하는 편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박혜백은 김명희와도 평소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명희는 이 편지에서 박혜백과 김구오를 소동파가 조주와 담이에 좌천되었을 때 각각 가르쳤던 조덕과 강당 좌에 비유했다. 즉 자신의 형인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 가서 조덕과 강당좌 같은 뛰어난 현지 인물을 얻어 가르쳤다는 말이다. 그런 박혜백은 추사 김정희가 방면되어 육지로 나왔을 때 그를 불렀는데 어떤 사람의 질시로 독살되었다고 전해진다.

168) 전각은 동양 특히 중국권 문화의 독특한 순수 예술이다. 전각은 한자의 전서체를 새겨 조각하는 것, 즉 인장을 조각하는 것이다. 전서체를 쓰는 이유는 자형(字型), 획 등이 갖는 조형성이 돌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전서체만을 쓰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서체를 쓰더라도 모두 전각이라고 한다. 전각은 반드시 돌에만 새기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서체를 쓰더라도 모두 전각이라고 한다. 여러 재료를 사용한다. 당대 독특한 전각 풍을 이루고 있던 추사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전각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며 (史此中學輩摹刻) 재주가 좋은 제주도 사람이 | 죽자 매우 애통해 하기도 했는데(而此中善刻者間已化去是切悶然)이렇게 당대 제주도에서는 추사를 통한 전각의 보급이 활발했는데 이를 두고 전각운동 이라고 하였다. 참고 ; 양진건,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6. 2003, P98.

169) 『阮堂先生全集』, 卷 2, 「使此中學徒輩摹刻」: 양진건, 「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 教學思想 研究」, 제주도연구 9. 제주도연구회, 1992, p195에서 재인용.

170) 『研濃先生遺墨』 참조: 양진건 위책 P 196에서 재인용.

유배인이 고위정객(高位政客)일수록 일부 제주인들과의 관계는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무엇보다 해배(解配) 후의 정치세(政治勢)의 복귀에서 비롯되는 이해(利害)가 그런 관계를 가능케 하였던 기본 동인(動因)이었다. 질시 또한 그런 관계의 연장에 놓여있는 문제였다.

5) 오진사(吳進士)

추사 김정희가 ‘수선화와 같이 아름다운 선비’ 라고 예찬한 오진사(성명 미상)와의 관계는 ‘완당선생전집’에 그에 대한 편지가 8통이나 실려 있을 정도로 각별했다.¹⁷¹⁾ 오진사는 추사 김정희에게 글씨와 글의 가르침도 받고 책도 빌려보곤 했다.¹⁷²⁾ 척박한 제주도에 이런 만남이 있었다는 건 큰 은혜다.

이곳 사람들이 의당 그대를 애석히 여겨야 할 터인데 비단 애석히 여길 줄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 말살하려고 까지 하니 이러기에 완적이 서궁이 있게 되는 까닭이라 바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소. (전집 권4, 오진사에게 제4신)¹⁷³⁾

옛 선비들의 사제관계는 단순히 제자가 스승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경의를 표하던 집지(執贄)의 형식에만 얽매이진 않았다¹⁷⁴⁾. 이러한 ‘서로 만남’이야말로 사제관계의 중요한 동기였다. 『완당선생전집』에는 오진사에게 보낸 편지가 무려 아홉 통이나 실려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제주도 사람이 틀림없다. 오진사와의 만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었다¹⁷⁵⁾.

두 종류의 글씨를 여기까지 보내주어 궁벽하고 황량하며 적막하기만 한 이곳에서는 흔히 있지 않은 묵연(墨緣)을 보게 되니 감사할 뿐이네……서법도 확실히 아름다워 조맹부의 문정(門庭)에 있다 하겠고 구양순에 이르러는 걸모양만 흉내 내고 속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터득한 것이네 ……우선 잠깐 두었다가 추후에 돌려보내겠네(전집 권4, 오진사에게 제6신)¹⁷⁶⁾

171) 양진건, “앞의 책” 2005, p38. 재인용.

172) 유흥준, 『완당평전』, 학고재, 2002, p226.

173) 『阮堂先生全集』, 卷四, 與吳進士, 基四, “此中之人固當愛惜左右非徒不知愛惜從以抹殺之此所以阮徐之窮而直令人寒心” 참조 : 양진건, 추사문헌발췌학술조사 보고서, 2005, p38. 재인용.

174) 양진건, “앞의 책”, 2011, p113.

175) 유흥준, 「김정희」 학고재, 2006, p206.

추사 김정희가 오진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세계 안에서 만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참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스승은 스승임을 그치고 제자는 제자임을 그치는 한에서 가능해진다. 이것이 추사와 오진사간에 따뜻한 인간애를 느끼게 한다.

때마침 수선화를 대하니 아름다운 선비가 몹시 생각났는데 곧바로 값진 서한을 받으니 신의 어울림이 있는 듯하네. 하물며 눈 내리는 추위에 장식한 신발이 평안하시다니 마음이 흐뭇하구려. 고죽(古竹)은 과시 진기한 물건이로세. 그대의 후한 선물이 아니면 어떻게 얻어 볼 수 있겠는가. 줄서 한 폭을 이편에 부쳐 보내니 웃고서 받고 물리치지 마시기 바라네.” (阮堂全集 券四, 오진사에게 제7신)¹⁷⁷⁾

추사 김정희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서신을 주고받으며 지적 기쁨을 누렸다.

6) 김구오(金九五)

추사 김정희는 김구오에게 시(詩)를 많이 가르쳐 주었는데 특히 청나라의 풍어산(馮魚山)과 여이초(黎二樵)에 대해 공부할 것을 권하였으며. <어초합벽(魚樵合壁)>이라고 두 학자의 시와 그에 대한 평을 추사 김정희가 직접 써서 김구오에게 보내준다¹⁷⁸⁾. 추사 김정희는 김구오에게 각(刻)하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고 김구오는 아들 우제(愚濟)에게 가르키고 뒤 이어 손자 김의남(金義南)이 그 방법을 계승하였다¹⁷⁹⁾. 이렇게 제주의 전각 전통은 추사 김정희와 김구오의 사제관계가 이루어낸 성과다.

7) 강도휘, 강도격

강도휘(姜道輝)와 강도격(姜道激)은 강도순의 다섯째, 여섯째 동생이다.

강도휘는 특히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서울 심부름도 하고 그 덕에 많은 가르침을 받는다¹⁸⁰⁾. 후일 《진주강씨대동보》에도 “秋史金正喜門人九年間受受”라고 달

176) 양진진, “앞의 책”, 2005, p38 재인용.

177) 유홍준, 「김정희」 학교재, 2006, p206.

178) 양진진, “앞의 책”, 2011, p111.

179) 양진진, “앞의 책”, 2011, p112.

180) 양진진, “앞의 책”, 2011, p105.

고 있을 정도다. 증언에 의하면 어린 시절 강씨 집안 어른들이 추사 선생에게서 공부를 한 나를 자랑처럼 기억한다고 한다.

연말에 멀리보내주신 편지를 보고서 매우 위로되고, 또 건강이 공사 간에 탈이 없음을 알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부리(副吏)의 임명은 매우 다행입니다. 그 사이에 지내온 것은 편지 한 장으로 다할 수 없습니다. 보내주신 세 가지 물건을 받고 매우 감사합니다. 근래 그 곳 소식은 막연하여 듣지 못해 궁금합니다. 강도휘는 편안히 돌아갔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매우 기쁜 것은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갈 인편이 매우 재촉하여 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편지 형식을 못 갖춥니다¹⁸¹⁾.

편지 내용으로 볼 때 강도휘는 추사 김정희의 서울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진주강씨대동보》에도 “秋史金正喜門人九年間受受”라고 달고 있어 그것을 증거 한다. 강동수씨 증언에 의하면 어린 시절 강씨 집안 어른들이 추사 선생에게서 공부를 한 강도휘를 자랑처럼 기억한다고 한다.

그리고 강도순의 막내 동생인 도격은 과거시험 보러 갔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의 무덤은 추사 김정희의 고향인 충남 예산에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가 과거를 보러갈 정도로 공부가 높고, 그의 형 강도휘의 행적과 비교해볼 때 그 역시 추사 김정희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그의 죽음조차도 추사 김정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¹⁸²⁾.

8) 김좌겸(金左謙)

한말 망국의 치욕에 울분을 토로하고 국권 회복의 의지를 가다듬기 위한 항일 구국의 비밀 결사체인 ‘집의계(集義契)’를 만든 12명 유림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김좌겸은 젊은 시절에 추사 김정희 밑에서 공부했던 제주 사람이다¹⁸³⁾.

9) 강문석(姜文錫)

제주도 대정 출신으로 사회주의 운동가. 제주4·3사건 때 남로당 제주 총책임자

181) 양진진, “앞의 책”, 2011, p106.

182) 양진진, “앞의 책”, 2011, p107.

183) 이영권,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P214.

이자 유격대 총사령관이었던 김달삼의 장인이다¹⁸⁴). 강문석은 대정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25년 4월 모슬포에 한남의숙(漢南義塾)¹⁸⁵을 설립 한 뒤, 모슬포청년회 회원으로 민중계몽운동과 청소년운동을 벌였다¹⁸⁶). 강문석을 통해 제주도 대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유배문화의 핵심에 자리한다. 당대에 비판적이었던 유배인과 교호하면서 제주도의 정신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탐라의 독립을 갈망하는 현지 주민들의 분리주의적 성향은 유배 지식인의 비판적 의식과 묘한 조화를 보이면서 반골정신을 보인다. 반골정신은 제주도 내외에서 가해졌던 여러 수탈과 탄압 그리고 박해와 혼란에서 연유된 일종의 저항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은 수차례의 제주민란이 모두 대정을 중심으로 봉기되었고 민란의 장두들 대부분이 유배인과 관련을 맺고 있었던 점이 중요한 증거다.

10) 강기석(姜琦奭)

조선 후기 문신으로 제주향교의 도훈장을 지낸 인물로 당시 제주도로 유배 온 추사 김정희의 문하생으로 사숙하였으며¹⁸⁷) 1873년 면암 최익현이 제주도로 유배 오자 교유류하였다. 강기석은 김정적려유허비(金淨謫廬遺墟碑)'의 건립을 제주목사(濟州牧使)에게 건의하였다. 1853년(철종4) 왕명이 내려지자, 김정(金淨: 1486~1520)이 제주도에 귀양 가서 살았던 적소(謫所)에 제주의 유생들과 함께 적려유허비(謫廬遺墟碑)를 세웠다¹⁸⁸).

11) 강사공(姜師孔)

제주도 대정읍(大靜邑) 일과리(日果里)에서 태어났다. 강사공은 대정향교(大靜鄉校)의 훈장을 지내면서, 지방의 유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¹⁸⁹) 1846년(헌종 12)에는 1840년(헌종 6)부터 제주도로 유배와 있던 추사 김정희를 찾아가서 '의문당(疑問堂)'¹⁹⁰이라는 해서체의 글씨를 받고, 오재복(吳在福)

184) 김남식. 남로당연구. 돌베개, 1984, p67.

185) 동아일보(1928.12.28)에 의하면 1928년 일제의 탄압에 의해 폐교되었다.

186) <http://terms.naver.com>. 출처 : 한국민족문화개백과 한국중앙연구원.

187) 김찬흡. 제주시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188) 제주도편찬위원회. 濟州道誌. 第六卷. 제주도, 2006, p217

189) 南濟州郡. 南濟州郡誌 : 郡制60周年. 제 3권. 1986, p288

190) 궁급하거나 의문이 나는 학문의 내용을 추사 김정희선생에게 묻고 설명을 듣는 장소라는 뜻으로, 지역 향교 유림·지방유생·학도들에게 경학과 시문, 그리고 서도를 가르쳐 준 곳.

에게 각자를 시켜 대정향교의 동재(東齋) 현판으로 걸어놓았다. 이것은 1811년(순조11)에 대정현감(大靜縣監) 변경봉(邊景鵬)이 주자(朱子)의 필체를 집자(集字)하여 대정향교의 명륜당에 걸어둔 것을 본받은 것이다¹⁹¹⁾.

12) 김달삼(金達三)

사회주의 혁명가로 1948년 제주 4·3 사건을 주도한 남조선로동당원이다. 그의 본명은 이승진이며, 강문석의 사위였다. 김달삼이란 이름은 원래 강문석이 쓰던 가명인데 이승진은 이를 이어받아 사용한 것이다¹⁹²⁾. 1946년 말 대정중학교 사회과 교사로 재직 중에 남로당 당책이자 군사부 책임자가 되었다. 김달삼은 친일파 척결, 자주독립 및 남북통일 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며 5·10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남한 정권이 수립된 직후인 1948년 8월 21일 황해도 해주에서 인민대표자대회가 열리자 김달삼은 여기에 참가하여 '제주 4.3투쟁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¹⁹³⁾.

191) 南濟州郡. 南濟州郡誌：郡制60周年. 제 3권. 1986, p289

192) 양진건, “앞의 책”, 2011. p104

193)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p162.

V. 제주교육사적 의미

1. 추사 김정희의 제주사제관계 영향

유배지에서 추사 김정희의 사람됨의 넉넉함은 제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어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과의 관계맺음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 그의 스승됨은 스스로의 사람됨에서 연유한 것이지만 그 사람됨의 넉넉함 때문에 제주유림들과 사제관계 형성 과정에서 특히 그 폭이 넓고 시문(詩文)이나 서예(書藝)는 물론 전각에까지 그의 가름침은 행사되었다.

특히 제주도에서 추사는 출중한 제자들을 키워냈는데 그 제자들과의 교학적 활동이 제주도민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었는지 대표적인 사제관계 의미를 살펴 보면 다음 표1>과 같이 정리된다.

<표1>. 추사 김정희의 대표적 제주사제활동

성명	교학활동내용	특징	영향을 준 제자
강도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씨와 그림에 재능 ◆ 제주필원(筆苑)¹⁹⁴의 한 사람으로 추앙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사의 강도순에 대한 영향은 유배지 대정현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 ◆ 개량서당인 한남의숙을 설립,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 교육 사업에 지대한 영향¹⁹⁵을 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달삼(강도순 사위)은 제주 4.3 운동에 앞장섬. ◆ 강우백은 1901년의 이재수란 또는 성교란(聖敎亂)으로 불리는 농민항쟁의 장두 가운데 한 사람임.
이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에 몰입하여 천문·산경·지리·병서 등에 통달. 특히 시(時)에 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기석, 오승현 등 제주도의 대표 유림들과 어울리며 여러 제자들을 배출한 당대 제주의 사표 임¹⁹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달삼, 김희정, 이계징, 고영혼 등 - 안달삼과 이계징은 후일 장성의 노사 기정진 문하생으로 활약¹⁹⁷. - 당시 도학으로는 안달삼을, 시학으로는 김희정을 남주(南州) 제일인자로 꼽음¹⁹⁸. - 김희정은 최익현이 제주에 유배왔을때 문인이 됨¹⁹⁹.

194) 필원이란 문필가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로 추사를 중심으로 모여 그에게 글과 글씨를 배웠던 제주도 사람들의 인맥을 뜻함. 참고 : 양진건, 앞의책(2002), p217.

성명	교학활동내용	특징	영향을 준 제자
박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리의 수재로 불릴 정도로 똑똑함. 붓을 만드는 필장, 제주필원, 『阮堂印譜』를 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에서는 추사를 비교적 제대로 승계한 유일한 인물로 (완당선생서법총론 『阮堂先生書法總論』)도 남김²⁰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구오→김우제→김의남→연농 홍종시가 추사의 전각 풍을 이어 감. 홍종시는 서화가로 제주를 찾은 개화 사상가와 민족주의자들과 교류하면서 근대학교를 설립하는데 앞장을 섰고, 전통예술의 품격을 지키면서 제주예술의 터전을 닦는데 기여 함²⁰¹⁾.
강도휘 강도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도순의 다섯째, 여섯째 동생이다. 강도휘는 과거시험치를 정도로 학문이 뛰어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도휘는 서울 심부름을 자주하며 육지와 교류, 메신저 역할. 	
이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문에 뛰어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사의 사제관계는 권위보다는 사람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됨을 보여 줌. 제주에 실사구시 사상 전파²⁰²⁾ 	
김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의 명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사의 독특한 시서화 일치의 교학사상을 제주에 뿌리내리는 데 큰 몫을 함.²⁰³⁾ 	

이렇듯 추사 김정희는 현지주민들과 동화된 풍성한 여러 사제관계들을 보여주었으며 그는 제주도에서도 문화의 계승과 계발이 이루어지길 열망했고 제주도 사람들의 열의를 반가워하며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심성의껏 가르쳤다.

195) 양진건, “앞의 책” (1990), p48.

196) 양진건, “앞의 책” (2005), p35.

197) 尹營善, 『朝鮮儒賢淵源圖』, 태학사, 1985, p177.

198) 오문복, 『영주풍아』, 이화문화출판사, 2006, p227.

199) 김인기, 「朝鮮後期 勉庵 崔益鉉이 濟州教育에 끼친 影響에 관한 研究」,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1. p32.

200) 유홍준, 『김정희』, 학고재, 2006, p259.

201) 제민일보, 「개화사상, 풍류 넘치는 文士」, 연농 홍종시, 2009년 11월23일.

202) 양진건,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 연구」, 탐라문화, 1988, p68.

203) 양진건, 「朝鮮朝 濟州教育思想史 研究」, 濟州道研究 제3집, 1986, p242.

2. 제주교육사적 의미

조선말기 피치 못할 정치적인 사정으로 제주에 들어온 유배인들의 제주에 대한 관심은 개인과 계층에 따라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떻든 문화적으로 제주사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추사 김정희는 제주를 삶의 터전으로 삼으면서 제주사람과 제주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²⁰⁴⁾. 유배라는 차별적인 인적 관리책이 특히 제주도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추사 김정희는 교학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제주인들의 동기와 사기를 진작시켰던 조건이기 때문이다²⁰⁵⁾.

추사 김정희의 교학활동은 일련의 계몽활동에 비견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의미하는 계몽활동이란 근대 이성주의 소산으로서의 계몽주의적 활동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깨우침과 관련된 제반 가르침의 활동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원래 계몽(啓蒙)이란 환하게, 명료하게 한다는 행위와 그 행위 이전의 상태가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때 결국 계몽은 어두운 상태를 빛으로 비추어 밝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깨우침과 관련된 가르침의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계몽적 교육 활동은 이미 예부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실천되고 이해되어 왔던 소위 「좋은 인간관계」의 형성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훌륭한 인간관계는 상호존중, 호의, 인간의 권위와 가치에 대한 신념의 굳건한 기초 위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전제하였는데 추사 김정희의 제주교학활동은 그러한 전제를 만족시키는 조건이 된다²⁰⁶⁾. 추사 김정희와 제주인과의 만남은 돌발적인 만남이었지만 스승과 제자로서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이고 생동적인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환경에 대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모든 관계를 망라한다.

제주는 지리적으로 섬이기 때문에 제주문화의 복합성과 다층성에서 제주사람들은 사방의 문화를 수용하는 개방성과 외부문화의 억압에 의해 피동적으로 수

204) 현길인,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p128.

205) 姜禎殷, 『濟州教育行政發展史』, 濟州道教育廳, 1991, p134.

206) 고범석, 「제주유배문화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일 연구」,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3.

용하는 폐쇄적이고 다층적이고 상황적인 면이 있지만 교육사적으로 끼친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났고 제주교육과 제주문화를 성숙시키는 밑거름이었다. 당대 최고 지식인에게 교학사상과 정신세계를 배워 상대적으로 낙후된 제주의 학문과 기틀을 마련할 기회²⁰⁷⁾가 된 것이다.

추사 김정희는 유배생활 동안 유배지 환경에서 적응하려 했던 지향성은 유배지 현지 민초들이 학문에 뜻을 두어 전심하는 태도만 보이면, 추사는 전심을 기울여 가르쳤다. 추사는 가르침에 제자들보다 우위에 서지 않고, 사제동행으로 제자들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때만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참다운 스승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이런 인간다움이 추사가 위항인의 교류한 지향적 위상을 갖게 된 것으로 본다.

추사 김정희는 국가가 흥망하는 길은 위정자의 윤리의식, 정치관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 분야에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더욱 필요하다는 교육의식(教育意識)을 시사해 준다.

추사 김정희는 조선후기의 시대적 문제의식과 제주유배의 상황적 문제의식의 결과 산출된 실학사상의 추사다운 한 면모를 보여 주었다²⁰⁸⁾. 스승의 역할강조, 경험주의적 인식론, 책읽기, 논쟁정신의 교육사상은 추사가 처했던 당대 문제 상황의 해결적 기반을 구축하는 탐구(探究)와 개척(開拓)과 극복(克服)의 방안으로 현실 문제를 타결하는 첩경으로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지속적인 자기개발 즉 교육(教育)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중앙이나 혹은 영남, 기호지방 등에 비해 학문적 논의가 절대적으로 빈약했던 제주도로서는 추사 김정희의 적거가 곧 학문적 개안으로 연결될 수 있었고, 추사의 교육 감화력은 제주지역의 문풍진작에 최대의 변수로 적용되었다.

제주도에서 추사 김정희는 몇몇 출중한 제자들을 거느릴 기회를 가졌는데 그 제자들과 교학적 관계란 일방적이며 권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만남'의 사제관계를 형성했으며 그러한 관계형성에 있어 추사는 방대한 양의 서책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지역주민들에게 보여 주었다.

추사 김정희는 종합적 교육인간학으로서 유학의 특징을 예술, 교육적 측면에서

207) 姜禎殷, 『濟州教育行政發展史』, 濟州道教育廳, 1992, p129.

208) 유흥준, 「추사 김정희 :유배지 제주섬에서 피어난 꽃」, 역사비평사, 1998, p334.

새롭게 제주도민들에게 가르쳤으며 특히 사제관계의 개방적 성숙은 교육이 지향하려는 목표이며 유배지에서의 즐기찬 교학활동은 유배기간 동안 많은 제자들에게 의식각성과 관련한 교학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²⁰⁹⁾.

나아가 개화사상의 발전적 연원이 실학사상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에서 해국도지류의 선각적 사상을 여러 제주 학인들에게 유포시키는 등의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한다. 그의 활동은 개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개화사상의 전체적인 명맥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제주도민의 근대적 자각에 기여했다. 제주도민의 근대적 각성은 비판의식을 제시한 반골정신으로 또한 제주교학활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²¹⁰⁾.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에서 생활하는 동안 의·식·주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지만 자신의 직면한 현실을 부정하거나 거역한 것이 아니라, 겸허한 자세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다양한 가르침을 주었다.

추사 김정희의 교학활동은 다른 무엇보다 제주도 근대교육의 구체적 전망을 열었다는 점에서 교육사적 의의를 갖는다²¹¹⁾. 즉 조선후기 추사 김정희의 교학활동을 전후하여 제주교육사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전개구조를 갖게 되었던 점과 제주교학질서의 정맥(正脈)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9) 양순필, 양진건, 「秋史의 濟州 教學活動 研究」, 제주대학 탐라문화연구소, 1987, p73.

210) 양진건, 「濟州流配人の 開化教學活動 研究」, 教育思想史, 1992, p281.

211) 濟州道教育研究員, 「濟州教育通史」, 1974, p181.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추사 김정희는 조선후기의 인물들 중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며, 그의 학식은 당대의 최고였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교육이란 전통 유학 사회였던 조선시대의 학문과 입신양명을 위한 중요한 도구였으며, 또한 깨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 본 후에는 교육의 상황이 사람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을 제주유배 기간 동안 많은 제주인들과의 사제관계를 통해 보여 주었다.

추사 김정희에게 있어서 유배 기간은 그동안의 학문을 정리하고, 독서에 매진 하여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이자 창조의 시간이었다. 추사 김정희는 문화 엘리트로서 당대의 지식인이었기에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의 입지 자체는 현지에서 학문적 개안(開眼)을 위한 강도 높은 교학적 자극일 수 밖에는 없었다. 더욱이 유배지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추사 김정희의 영향력은 조선조 제주교학질서의 정맥(正脈)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육지와 달리 학문적인 기반이 약했던 제주도는 관료나 유배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유학을 접하기 어려웠다. 제주유배가 대부분 정치세력의 변동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일정한 학파의 성향을 갖지 않는 제주유학만의 특징이 조선말까지 지속되었다. 제주 유학자에게 유배인들은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기회였다. 특히 추사 김정희는 제주 주민들에게 있어서 '한문 지식인'과 같은 유배인의 귀족적이고 고답적인 태도 때문에 현지의 지식인들이나 기득권층과만 교류한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추사 김정희의 학문과 문화를 불모지에 전수한 효과는 적지 않다고 본다.

역설적으로 추사 김정희가 적거했던 대정은 제주도 유배문화의 핵심에 자리한다. 당대에 비판적이었던 유배인들과 현지 주민들이 교호하면서 만들어진 제주도 유

배문화의 독특한 특징을 대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의 정신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탐라의 독립을 갈망하는 현지 주민들의 분리주의적 성향은 유배 지식인의 비판적 의식과 묘한 조화를 보이면서 제주도 유배문화의 독특한 특징을 이루게 된다. 그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반골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반골정신은 제주도 내외에서 가해졌던 여러 수탈과 탄압 그리고 박해와 혼란에서 연유된 일종의 저항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유배 지식인들의 반체제적 기질을 이어받은 이러한 반골정신은 수차례의 제주 민란이 모두 대정을 중심으로 봉기되었고 민란의 장두들 대부분이 유배인의 후손이거나 유배인과 관련을 맺고 있었던 점 등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들이다.

이상에 논의한 추사 김정희의 교학활동에서 나타나는 사제관계에 대하여 고찰한 바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사 김정희는 윤상도의 옥사에 연류 되어 위리 안치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서책과 서화를 통해 자신의 심기를 다스려서 적소의 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제주인들에게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추사 김정희가 적소(適所)인 고도(孤島)에서 학문과 예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격조 높은 예술의 경지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제자 이상적과 초의선사, 소치, 강위 등이 있었기에 실현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추사 김정희는 유배생활동안 유배지 환경에 적응하려 했던 지향 중 유배지 현지 민초들이 학문에 뜻을 두어 전심하는 태도만 보이면 전심을 기울여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제관계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2. 제언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사 김정희의 제주 교학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기에는 관련된 문건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추

사는 유배서간을 통해 겨우 얼마쯤 기록을 남기고 있었지만 체계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하였다. 추사가 유배기간에 썼던 서간뿐만 아니라 한시 또는 주변의 파편적인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일련의 제주 교학활동에서 나타나는 사제관계의 체계를 구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 면모를 보다 폭넓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대의 사제관계는 자칫하면 아무런 윤리성도 없는 기능주의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막연한 관계정보보다는 교사의 역할과 학생의 역할을 좀 더 특수하게 세분화 하여 서로가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사제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추사의 사제관계가 오늘날의 사제관계에 주는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추사의 사제관계가 시사하는 스승의 개방성을 전제로 제자의 인격적 독립성과 자율성의 존중, 자유와 평등의 자세, 그리고 스승과 제자 간의 역할에 대한 투철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I. 단행본

- 김봉옥(2001). 『증보제주통사』. 제주 : 세림.
- 김봉호(1992). 『초의선사와 완당 김정희』. 우리출판사.
- 김상엽(2008). 『소치 허련』. 서울 : 돌베개.
- 김정희(1997). 『국역 추사전집』 4. 민족문화추진위원회.
- 김태능(1982). 『濟州道史論考』. 세기문화사.
- 김찬흠(2002).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 南濟州郡(1986). 「南濟州郡誌 : 郡制60周年」. 제 3권.
- 박철상(2010). 『세한도』. 서울: 문학동네.
- 신규수(2000). 『유배, 유배지, 얽힌바람 1, 2.』. 서울 : 이유.
- 양진건(1999). 『그섬에 유배된 사람들』.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_____(2008). 『제주유배문학자료집 (I)』. 제주대학교출판부.
- _____(2011). 『근·현대교육 100년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_____(2011). 『제주유배길에서 秋史를 만나다』. 서울 : 푸른역사.
- _____(2011). 『추사, 그에게 길을 묻다』.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
- 이광린(1976). 『동방학지』. 「강위의 인물과 사상」.
- 이상국(2008). 『추사에 미치다』. 서울 : 푸른역사.
- 오문복(2006). 『영주풍아』. 이화문화출판사.
- 오성찬(2002). 『추사 김정희』. 서울 : 큰산.
- 이종찬(2010). 『초의시고』. 동국역경원. 서울 : 동국대학교.
- 유승국(2004). 「19세기 實學의 巨頭 秋史의 學問과 藝術世界」. 秋史研究會.
- 주승택(1986). 『한국학보』. 「추금 강위의 사상과 문학관」.
- 제주도편찬위원회(2006). 『濟州道誌』. 第 六 卷. 제주도.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제주도.

- 유봉학(2002). 「추사의 시대 - 정치적 추이와 추사 일문」. 서울 : 돌베개.
- 유홍준(2002). 『완당평전1~3』. 서울 : 학고재.
- _____(2002). 『추사평전』 1, 2, 3. 서울 : 학고재.
- _____(2006). 『김정희(알기쉽게 간추린 완당평전)』. 서울 : 학고재.
- 윤영선(1985). 『朝鮮儒賢淵源圖』. 태학사.
- 역사문제연구소(1989). 『역사비평(1998년 겨울)』. 역사비평사.
- 손연숙(2008). 『차 문화 기행』. 「현장에서 쓴 우리 차의 역사와 문화」. 서울 : 문성당.
- 신창호(2005). 『교육학 개설』. 「우리 교육의 본질과 흐름에 관한 탐구」. 서울: 서현사.
- 한승원(2007). 『추사1, 2.』. 서울 : 열림원.
- 최순택(1996). 『秋史의 書畫世界』. 학문사.

II 논문 및 기타

- 고범석(2004). 「제주유배문화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일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고창석, 양진건(1989). 『濟州道 流配에서의 勉庵 崔益鉉의 濟州敎學活動 研究』. 耽羅 9.
- 권혁순(2009). 「阮堂 金正喜 漢詩의 自然觀 研究」.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학위논문.
- 김대식(2003). 「肅宗朝 背師論爭에 나타난 士林의 師弟關係 認識」. 교육사학 연구 제13집.
- 김명숙(2004). 「추사 김정희의 정치활동과 정치론」.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희(2003). 「유교적 교육전통에서의 사제관계의 성격」. 동양사회사상학회 학술지.
- 김은미(1997). 「秋史 金正喜의 號에 대한 研究」. 원광대 서예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인기(2011). 「朝鮮後期 勉庵 崔益鉉이 濟州敎育에 끼친 影響에 관한 研究」.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김영진(1992). 「유산(酉山)정학연의 생애와 저작에 대한 일고(一考)」. 다산 학술재단 학술논문.
- 김재형(2011). 「조선시대 제주유배인 실태분석과 특징」. 제주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2004). 「추사의 문장에 침윤된 추사의 학문」. 추사연구 창간호. 과천 추사 연구회.
- 박동원(1983). 「완당과 실사구시설」.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자(1986). 「秋史 金正喜의 生涯와 藝術」.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인주(1987). 「한국교육사상사의 전개과정과 전망」. 한국교육사상 학술지.
- 서승택(1994). 「완당의 실학사상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창호(2005). 「추사 김정희의 인간관과 교육과정론」. 教育問題研究. 제23집. 고려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 진영민(2007). 「초의 의순의 선사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용(2004). 「東學의 教育思想과 現代의 意義」.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후수(1988). 「이상적 시문학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윤갑(2010). 「지방사의 역사교육 활용방안」.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춘희(1987). 「秋史 金正喜의 生涯와 그의 作品世界」.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순필 · 양진건(1987). 「秋史의 濟州敎學活動 研究」. 『탐라문화』 제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양진건(1996). 「朝鮮朝 濟州 教育思想史 研究」. 濟州道研究 제 3집.
- _____(1989). 「추사 김정희의 濟州師弟 淵源考」. 신용준박사 華甲紀念論叢.
- _____(1989). 「濟州 五賢의 敎學活動 研究」. 耽羅文化 7.
- _____(1992).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 교학사상 연구」. 濟州道研究 제9집.
- _____(1992). 「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 敎學思想 研究」. 濟州道研究.
- _____(2001). 「유배문화와 제주도」. 교육인류학 연구.
- _____(2002). 「勉庵 崔益鉉의 濟州敎學活動 研究」. 한국교육사학회.
- _____(2003).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5권 제 1호.
- _____(2005). 「추사문헌발췌 학술조사 용역보고서」. 남제주군.
- 안경식(2002). 「사제관계 예서본 사도와 제자도」. 초등교육연구원 학술지.
- 원용석(2002). 「阮堂 金正喜의 教育觀 研究」.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대옥(2004). 「제주도 대정 지역의 교육사적 전통」.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한창훈(2000). 「秋史 金正喜의 濟州 流配期 諺簡과 그 文學的 性格」. 제주도 연구 제18집.
- 홍제곤(2010). 「지방사의 역사교육 활용방안」.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석사학위논문.
- 최경춘(2009). 「추사 김정희의 학문론(秋史 金正喜의 學問論)」. 동양한문학연구.
- 최완수(1985). 「秋史實記-그 波瀾의 生涯와 藝術」. 추사 김정희연구회
- 제주일보(2011. 03. 15). 「교학활동으로 제주인들과 폭넓은 인맥 추사 제자들」
- 제주일보(2011.03.29). 「추사, 제주서 사람에 대한 예의로 인간관계 형성」
- 제주일보 (2011.04.26). 「세한도, 제자의 변치 않는 마음·정성에 탄생하다」
- 광주매일신문(2011,01,24). 「남종화의 터전 진도 윤림산방」.
- 네이버 국어사전(<http://krdic.naver.com>).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Abstract】

Educational and Historical Meanings of Teacher-Pupil Relationships : Chusa Kim Jeong-Hee in Jeju Island

Yang, Eun-Sook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in-Ge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sider teacher-pupil relationships in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that Chusa Kim, Jeong-Hee formed while living in exile in Jeju Island for eight years and three months after he was involved in death of Yoon, Sang-Do in prison, focusing on the migrants and people living in Jeju Island. Then, it investigated educational and historical contexts of teacher-pupil relationships of Chusa Kim, Jeong-Hee that have received attention again, and the effects of his Shilsagushi(Seek Truth from Facts) learning which is scientific, on modern learning in Jeju Island.

Chusa constantly kept a passion for reading and an academic posture even during his banishment, and put devoted efforts into fostering the next generation in Jeju Island. He practiced ceaseless endeavors for learning throughout his entire life, selflessness was the root of his mental force to get over hardships, 'Learning · Questioning · Thinking · Distinguishing · Practicing' were how he learned within the broad teacher-pupil relationships, and shared everything, based on grand homogeneity which exceeds nation, and friend or foe, and distinguished between right and wrong

in forming personal connections.

Although his banishment life was a misfortune for himself, people in Jeju Island who had learned Tonggam, The Analects and Mencius only, were able to learn not only Saseo-Ogyeong, but calligraphy, astronomy and even arithmetics from him. As the result, he had a huge impact on modern learning of Jeju Island, as Confucian scholars of Jeju Island of the times could learn scientific Shilsagushi(Seek Truth from Facts) learning from him, at last.

As Chusa Kim, Jeong-Hee was exiled to Daejeonghyun, his students living far away and near studied following their teacher, and his wide knowledge and upright and clean character gave his pupils a big impression and influence. Therefore, it was an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foundation of learning and culture in Jeju Island where was backward relatively, and it is obvious that as an educator and a man of self-realization that highly influenced the educational history of Jeju Island, he made a big contribution to learning improvement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he region.

Chusa taught and learned, forming a lot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during his banishment in Jeju Island. The followings are teacher-pupil relationships and colleagueships he made during his activities.

Firstly, Chusa looked for ways of adapting to the exile, controlling his mind with books and paintings and calligraphic works and on the other hand, put a lot of efforts into finding solutions with a special interest in education for people in Jeju Island.

Secondly, Chusa could bring a turning point in learning and art and be immersed in dignified artistic achievement in Jeju Island that he lived in exile, thanks to Choeuisunsa, Sochi and especially, his pupil, Lee, Sang-Jeok.

Thirdly, he strived hard to improve education of Jeju Island and to brush up his studies, getting over the disadvantages of living in the region and expecting a better tomorrow, despite the poor environment. Moreover, he spread high-quality culture and left unique banishment culture heritages doing remarkable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in Jeju Island where was in a poor circumstance and behind in learning and political activities, maintaining a variety of relationships with students.

Chusa Kim, Jeong-Hee's civilized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have education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e way that they presented a specific prospect of modern education in Jeju Island. These findings imply that academic achievement and change of consciousness of exiles and regional scholars occurring during banishment are in an interactive relationship, not an one-sided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er and the surroundings".